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1996학년도

석사학위청구논문

제주도 관광자원의 공간분포

지리교육전공

정 찬 숙

1997

제주도 관광자원의 공간분포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1996년 12월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지리교육전공

정 찬 숙

정찬숙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지도교수

성 효 현

심사위원

김정은
이화대
최정복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1992년 제 나이 32살

빠르다고는 할 수 없는 나이에 첫 아이 종현이를 낳고 무모하게 대학원 공부를 시작한지 4년, 어렵사리 논문이 완성되었습니다. 2년후 겨울, 딸 다현이를 낳고 5일만에 교육행정 시험을 치르고 또 5일만에 종합시험을 보았습니다. 통통 부은 얼굴로 행여 찬바람 들까봐 온 몸을 옷으로 둘둘 말고 아버지 차에 실려 시험을 보러 갔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 논문은 저의 가족 모두의 사랑과 격려와 인내가 담긴 것입니다. 제가 제주에 있는 동안 대학원 등록까지 해주신 아버지, 논문 쓴다고 컴퓨터에 매달려 있을 때 두 말쌍장이를 돌봐주신 어머니, 컴퓨터를 이용한다고 수시로 들락거리며 불편함을 끼쳐도 싫은 기색 하나 없던 찬수 내외, 자료 분석과 영문을 도와준 찬우, 제주에 혼자 있으면서 참아준 남편, 그리고 엄마 공부한다고 밖으로 나가면 앙앙 울다가 할머니와 놀면서 기다리던 아이들.

이 논문은 저의 손과 이름을 빌렸을 뿐입니다. 그 고마움을 갚을 수 있을런지요. 마지막으로 부족한 제자에게 항상 웃는 얼굴로 자상하게 돌봐 주시고 세심하게 지적해 주신 성호현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늦은 나이에 공부하느라고 애쓰시는 엄마이면서 학생인 모든 여성에게 격려를 보냅니다.

1996년 12월

목 차

논문개요	vii
I. 서론	1
A. 연구목적	1
B. 연구방법	2
C. 연구동향	4
II. 이론적 배경	7
A. 관광의 의미	7
B. 관광자원의 개념 및 분류	8
III. 제주도의 지리적 개관과 관광개발	11
A. 자연 및 인문환경	11
1. 자연환경	11
2. 인문환경	14
B. 관광자원 개발역사	16
C. 제주도 관광객의 관광성향 추이	26
1. 제주도 관광객의 관광성향 추이	26
2. 관광객의 관광성향 비교	31

IV. 제주도 관광자원의 공간적 분포	35
A. 제주도의 관광자원	35
B. 제주도 관광자원의 공간적 분포	39
1. 대군집 지형	42
2. 대군집 식물상	45
3. 대군집 문화유산	47
4. 대군집 문화관광시설	49
5. 대군집 위락시설	52
V. 결론	58
참고문헌	61
부록	68
ABSTRACT	97

표 목차

표 1. 관광자원의 분류	10
표 2.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에 의한 관광지 개발내용	22
표 3. 제주도 주요 관광지 및 관광자원 개발연혁	24
표 4. 제주도의 전체 관광객수	28
표 5. 주요 관광지의 관광객수	29
표 6. 내국인 관광객의 장래 관광위락활동 전망	33
표 7. 군집별 관광지 특성	41
표 8. 군집별 관광지 특성-가중치를 더한 경우	57

그림 목차

그림 1. 연구지역의 관광자원 분포	36
그림 2. 대군집<지형>의 관광요인이 나타나는 지역	44
그림 3. 대군집 <식물상>의 관광요인이 나타나는 지역	46
그림 4. 대군집 <문화유산>의 관광요인이 나타나는 지역	48
그림 5. 대군집 <문화관광시설>의 관광요인이 나타나는 지역	51
그림 6. 대군집 <위락시설>의 관광요인이 나타나는 지역	54

논 문 개 요

오늘날과 같은 대중관광시대에 있어서 관광자원은 관광지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요소로서 관광객의 관광욕구를 충족시켜줄 뿐만 아니라 현장 교육의 대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관광자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이용을 위하여 다양한 정보의 제공뿐만 아니라 보다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이론연구와 전문적인 해석이 요구된다. 나아가 관광자원을 유형화하고 그에 따른 공간적 분포특성을 밝히는 것은 관광자원에 대한 논리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관광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가 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관광지인 제주도지역을 중심으로 관광객의 관광성향을 간단히 살펴보고, 관광자원의 공간적 분포특성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관광자원 개발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최근 제주도 관광객의 관광성향추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1989년부터 1994년까지 주요 관광지의 관광객수를 비교하였으며, 1983년 제주도 관광개발계획에 의한 관광위락활동 전망 자료와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문화유산자원을 방문하는 관광객수는 감소현상이 뚜렷하며, 지형 및 자연경관이 우수한 관광지를 방문하는 관광객수도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다. 반면에 산업관광시설, 스포츠·레크레이션시설, 식물상이 우수한 관광자원을 이용하는 관광객수는 비록 숫자는 적으나 그 증가율이 매우 높다. 따라서 제주도 관광객의 관광성향은 문화유산이나 자연경관을 관람하는 관광행태로부터 인위적으로 개발한 산업관광시설이나 스포츠·레크레이션시설을 관람·이용하는 관광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제주도 관광자원의 공간적 분포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광자원을 유형별로 분류한 후,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제주도 관광지는 5개의 대군집으로 분류되었다. 각 군집은 관광자원의 유형에 따라 지형적 요소가 풍부한 지역, 식물상이 두드러지는 지역, 문화유산이 풍부한 지역, 문화관광시설이 풍부한 지역, 위락시설이 풍부한 지역으로 특색지을 수 있다. 지형적 요소가 풍부한 지역은 서귀포시를 중심으로 제주도 남해안과 한라산 중산간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식물상이 두드러지는 지역은 제주도 남해안의 섬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다. 문화유산과 문화관광시설은 제주시를 중심으로 고도 100m이하의 해안 저지대에 분포하고 있다. 위락시설은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중심으로 제주도 전역에 분산되어 있으며 다른 지역과는 달리 고도 200-600m의 중산간지역에도 많이 분포하고 있다. 문화관광시설과 위락시설은 지형적 특색과 식물상이 두드러지는 기존 관광지를 거점으로하여 시설이 확장·분산되고 있다.

I. 서론

A. 연구목적

오늘날 경제의 고도성장은 국민소득과 생활수준의 향상을 가져왔으며 이는 유급휴가의 증대와 문화비의 증가를 가져왔다. 또한 각종기계와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여가시간이 증대되었다. 교통수단의 발달은 시간거리를 단축시킴으로서 거주지에서 먼 거리에 위치한 지역으로의 이동을 편리하게 하였다. 반면에 산업화와 도시화현상은 인간의 내면적 스트레스와 공해를 가중시키는 요소가 됨으로써, 도시에서 자연으로 탈출하고자하는 강한 욕구를 불러 일으켰다. 더구나 인간은 단순히 생존의 욕구에 머무르지 않고 보다 나은 삶을 희구하면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추구하려고 한다. 인간은 자기의 일상생활권을 벗어나 다른 자연이나 문화환경속에서 생활의 변화를 구하려는 욕구를 지닌다¹⁾. 이러한 행복한 삶과 생활의 변화를 추구하려는 인간의 욕구는 경제성장의 발달에 따른 사회·경제적 현상과 더불어 인간의 의식구조와 생활양식에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필연적으로 여가이용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즉, 관광의 대중화 시대를 맞이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대 이후 경제성장과 더불어 국민의 관광활동이 대중화되었다.

오늘날과 같은 대중관광시대에 있어서 관광대상으로서의 관광자원은 관광지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요소로서 관광객의 관광욕구를 충족시켜줄 뿐 아니라, 단순히 보고 즐기는 대상이 아니라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를 기초

1) 김혜숙(1991). "관광심리현상에 관한 연구", 관광레저연구 제3호, p. 129.

로 이해하고 관찰하는 현장교육의 대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관광자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이용을 위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이론연구와 전문적인 해석, 다양한 정보의 제공 등이 요구된다²⁾. 나아가 지역 또는 공간상에 다양한 형태로 부존되어 있는 관광자원을 그 특성에 따라 유형화하고 그에 따른 공간적 분포특성을 밝히는 것은 관광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가 된다.

관광목적지로서 선택하는 관광지는 관광객의 가치관, 지각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여러 관광지중에서 제주도는 화산활동으로 생성된 신비로운 자연경관과 독특한 언어, 풍속, 전설 및 역사적 문화유산이 잘 보전되어 있는 지역이다. 제주도의 이러한 자연·문화적 환경은 전국에서 선호도가 가장 높은 관광지로 각광을 받게 되었으며³⁾, 관광지리학적 입장에서 관심의 대상이 높은 지역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관광지인 제주도지역을 중심으로

첫째, 제주도 관광객의 관광성향 추이를 밝힌다.

둘째, 관광자원을 유형별로 분류한다.

셋째, 관광자원의 공간분포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B. 연구지역 및 연구방법

연구지역은 제주도의 전 지역중에서 문화재로 지정된 지역, 현재 관광지

2) 권용우·김선희(1994). “관광자원에 대한 지리적 연구동향”, 지리학 제29권 제2호, 대한지리학회, p. 201.

3) 교통부(1990). 「1991년도 관광동향에 관한 년차 보고서」, pp. 61-62.

로 이용되는 지역(1996년 완공예정인 개발지역도 일부 포함)과 자료수집 및 현지답사가 가능한 203개 관광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관광지 선정은 한국관광자원총람, 제주도지, 특정지역제주도종합개발계획 제1권 관광개발계획,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관광자료집, 관광홍보책자를 참고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조사 및 관계자와의 면담조사와 현지답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자료분석의 객관화를 위하여 계량적인 방법을 병행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주도의 관광자원을 유형별로 분류하였다. 관광자원의 유형은 문화유산, 산업관광시설, 레크레이션시설, 경관적 특성을 나타내는 지형적 특성, 생태계로 구분하였다.

다음으로 관광자원의 유사성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군집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가장 가까운 객체들끼리 묶어감으로써 군집을 만들어가는 병합적 방법을 이용하였다. 분석자료는 관광객이 관광지에서 관람하거나 즐길수 있는 관광요소 하나하나를 수치로 환산하여 이용하였다. 용두암을 예를 들면, 무형문화유산으로는 용두암 전설이 전해지고 있으며, 해안지형의 특색으로는 하효리현무암괴, 유상구조, 파식대, 조면암과 현무암의 단애 등을 관찰할 수 있고, 바위 표면에 섬갯분취, 낚시돌풀 등이 자생하고 있다. 즉 용두암에서 관광객들은 1개의 전설, 4종류의 해안지형의 특색, 2종의 식생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따라서 용두암은 문화유산 1, 해안지형 4, 동식물상 2로 수치화하여 분석하였다. 군집분석에 따른 결과는 군집들이 병합되는 과정을 덴드로그램(dendrogram)을 사용하여 표현하였다.

마지막으로 제주도 관광자원의 공간분포를 밝히기 위하여 군집별로 지도

화하였다.

C. 연구동향

관광이 지리학의 연구대상이 되는 것은 지표공간에 다양한 형태로 분포되어 있는 각종 관광자원이 지리적 제조건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광현상은 경관의 구조 형태 및 그 이용, 보존상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⁴⁾.

관광에 대한 지리학자들의 관심은 1930년대부터 일기 시작하였으며⁵⁾, 한국의 관광지 및 관광자원, 관광객에 대한 연구는 1970년대의 고도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관광산업이 발전하면서 시작되었다. 관광지리학자들은 각종 논문집에 산악관광지, 사찰관광지, 해안관광지, 온천관광지, 하천관광지, 동굴관광지, 관광자원 개발, 관광자원의 분포와 그 특색, 국민관광지개발, 관광지의 유형개발, 관광객의 특성과 공간이동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였다⁶⁾.

전국적인 규모하에서 체계적으로 연구된 논문중에는 관광지로서 제주도를 포함하고 있는것도 있다. 김병문⁷⁾은 한국의 관광자원의 분포를 유형화하고, 전국관광자원을 단위지역별로 특화도를 구하여 지역성을 구명하였다. 지역

4) 임한수·양미자(1986). “용인지역 관광자원의 분포유형과 관광행태에 관한 연구”, 응용지리 제9호, 성신여자대학교 한국지리연구소, pp. 1-2.

5) 권승애(1992). “중부 관광권에 관한 지리학적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13-17.

6) 김재관(1989). “영남권의 관광지역 구조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 13-19.

7) 김병문(1986). “한국관광자원의 유형별 분포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 1-213.

별 관광지 특성과 유형에서는 제주도 관광자원중 관광객이 즐겨찾는 관광지를 분석하고, 입지 및 규모별유형과 계절별 유형의 특색을 밝혔다. 임한수⁸⁾는 우리나라 관광자원의 분포유형을 분석하고 21세기 관광입국을 위한 관광자원 개발방향을 국토통일 정책구상과 연계시켜 제시하였다. 한국의 관광자원을 26개 개발소권을 중심으로 M. Peter의 관광매력인자별로 분류하여 자원개발의 지역차이를 밝혔는데, 제주도는 관광매력인자 가운데 명승지, 서원, 읍성, 동굴·계곡, 해수욕장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지역인 제주도와 관련된 논문들도 1973년부터 발표되기 시작하였다. 강상배⁹⁾는 제주도가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일반자원과 관광자원의 현황을 파악하고, 관광객, 관광업소의 실태를 조사한 후, 그 문제점을 제시함으로써 자원개발의 전망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서경립¹⁰⁾은 제주도에서 주로 이용되고 있는 자연관광자원과 일부 문화재의 개발 및 이용상태를 살펴보고, 질적인 측면에서의 관광자원개발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홍승운¹¹⁾은 제주도의 관광자원의 현황과 관광지역의 성립과정을 파악하고, 관광객, 관광시설 등 관광산업의 실태를 분석하여 일반적인 지역성을 밝혔다. 송성대¹²⁾는 계량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제주도내에 분포하는 관광자원의 양적·질적 특성

8) 임한수(1988). “한국의 국제관광자원 개발전략에 관한 연구 - 특히 통일정책과 관련하여” 응용지리 제11호, pp. 1-66.

9) 강상배(1973). “제주도의 자원에 대한 연구”, 논문집 제3집 제주교육대학, pp. 53-82.

10) 서경립(1976). “제주도의 관광자원 이용실태와 과제”, 제주대학교 논문집 제8집, pp. 227-243.

11) 홍승운(1977). “제주도 관광지역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1-81.

12) 송성대(1984). “관광자원 분포성향에 의한 제주도의 지역별 관광성”, 제주대학교 논문집 제18집(사회과학편), pp. 523-549.

과 분포성향 그리고 이에 의한 관광공간구조의 특색을 설명하였다. 관광공간구조와 관광지기능의 해명을 위하여 5개 대관광권과 21개 관광지구를 설정하였다. 백분비와 변동계수를 이용하여 자연적·문화적 관광자원의 분포성향을 파악하였으며, 입지계수(LQ)와 편기계수(DQ)를 이용하여 7개 관광지구로 구분하여 관광성을 설명하였다. 고의장¹³⁾은 관광자원으로 개발·이용되고 있는 제주도의 자연경관을 7개 분야로 구분하여 지형학적인 측면에서 기술함으로써 관광자료로 제공하였다. 오남삼¹⁴⁾은 서귀포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관광지 주민들의 관광동기, 관광의식, 향토관광자원에 대한 태도, 관광공간행태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관광동기, 관광자원 의식, 관광영향 의식 상호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관광행태의 체계를 구명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70년대에는 제주도의 관광자원과 관광산업의 실태를 분석하고, 관광자원 개발의 방향을 제시하는 등 관광잠재력을 중심으로 연구한 것이 주를 이루었으며, 기술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특색을 설명하였다. 반면에 80년대 이후부터는 관광자원의 유형화 및 관광공간구조와 관광행태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였으며, 대부분 계량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3) 고의장(1985). “제주도 자연경관의 관광지형학적인 분석적 연구”, 지역개발논문집 제13집, 경희대학교 부설 국토종합개발연구소, pp. 1-18.

14) 오남삼(1990). “관광지 주민의 관광행태에 관한 연구 : 서귀포시를 사례지역으로 하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 1-153.

II. 이론적 배경

A. 관광의 의미

관광이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현상이기¹⁵⁾ 때문에 관광의 개념도 학자에 따라 그리고 시대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발전해 왔으며, 아직도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토론이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길잡이로서 관광의 의미와 유사개념들과의 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관광(tourism)은 여가(leisure), 위락(recreation), 여행(travel) 등과 혼동되어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餘暇(leisure)는 생활에 있어서 구속·억압이 없이 자유로이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한다¹⁶⁾. 慰樂(recreation)은 여가와 밀접한 유사개념이 되고 있으나, 여가가 시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비해, 위락은 어떤 종류의 활동(activity)을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즉 위락은 여가에서 행하여지는 경험 또는 활동으로서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기쁨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¹⁷⁾. 旅行(travel)과 관광은 구별하기가 곤란하여 양자가 거의 혼용되고 있으나, 여행자(traveler)는 관광목적 뿐만 아니라 비관광형태인 이민, 유학생, 승무원(항공기, 선박), 정기권사용자, 단기체류노동자, 통과여행자까지도 포함한다¹⁸⁾.

15) A. Mathieson & G. Wall(1982). *Tourism : economic, physical and social Impacts* (New York : Longman), p. 14.

16) J. R. Kelly(1982). *Leisure* (New Jersey : Prentice-Hall), pp. 16-34.

17) R. G. Kraus & J. E. Curtis(1973). *Creative Administration in Recreation and Parks* (St. Louis : C. V. Mosby Co.), p. 3.

18) 김홍운(1989). 「관광자원론」 (서울 : 일신사), p. 6.

반면에 觀光(tourism)은 여가시간에 행하여지는 활동이라는 점에서는 위락과 유사하나, 거주지로부터 먼거리로 이동하여 24시간 이상 체류하면서 이루어지는 활동의 모든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관광행위는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임의적으로 이루어지며, 이동하는 동안과 체류지에서의 활동이 消費的이고, 정신적으로 기쁨과 만족감을 얻고 거주지로 되돌아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관광현상은 관광목적이나 선택하는 목적지, 목적지에서 행태, 그 행태를 유발시키는 직·간접적 요소들이 관련되어 나타나며, 개인의 가치관과 취향, 경제성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C. A. Gunn¹⁹⁾은 관광을 기능적 시스템으로 설명하면서 그 구성요소를 관광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 교통, 관광객을 끌어들이 만족감을 주는 관광개발대상, 서비스시설, 정보제공을 제시하고 있는데, 관광은 이와같은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B. 관광자원의 개념 및 분류

관광은 관광주체(관광객), 관광객체(관광대상), 관광매체의 3요소로 구성되어 있다²⁰⁾고 보는 관점이 일반적이다. 여기에서 관광대상은 관광주체인 관광객으로 하여금 관광동기나 관광욕구를 일으키게 하는 목적물이라고 규정할 수 있으며, 관광객의 주관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 대상이 매우 다양하며 광범위하다. 다만 관광대상을 엄격히 구분하여 관광자원과 관광시설로 구별하려는 견해가 있는 반면, 관광시설을 관광자원에 포함

19) C. A. Gunn(1988). *Tourism planning* (N. Y. : Taylor & Francis), pp. 68-73.

20) 김진섭(1990). 「관광학원론」 (서울 : 대왕사), p. 20.

시키려는 견해가 있다. 관광자원과 관광시설을 구별할 경우, 관광자원은 관광여행의 유인이 되는 자연 또는 인문적 매력물로 규정하고 있다²¹⁾. 다른 지방의 자연이나 문화적 특성을 보고 즐기는 형식의 관광행동이 중심이 되는 경우에는 관광자원과 관광시설을 구별하여 보는 견해가 바람직하겠으나, 현대에 있어서 관광객들이 인공시설에 의한 위락적 활동을 선호하는 경향이 증가하고²²⁾ 있기 때문에 관광시설을 관광자원에 포함시키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또한 관광시설이 존재함으로써 그 지역의 자연적 · 문화적 관광자원은 한층 특색을 띠면서 활성화된다²³⁾.

관광자원의 범위는 한정되어 있지 않으며 국민관광의 발전과 함께 범위가 더욱 확대되어 가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관광자원의 분류방법도 다양하여 관광자원의 생성과정, 관광행동패턴, 토지이용단위별, 유형 · 무형의 여부, 자원의 이용성격 등 다양한 기준에 의해 분류하였다. 그리고 과거에는 관광대상이 자연관광자원에 편중되었으나, 근래에는 산업의 발달과 무역의 확대에 인하여 산업시설을 관광자원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사회 · 문화적 관광자원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관광객의 행동패턴의 변화와 함께 관광레크레이션시설이 중요한 관광자원이 되고 있다²⁴⁾. 이와같은 경향을 반영하여 일반적으로 관광자원은 자연관광자원, 문화관광자원, 사회관광자원, 산업관광자원으로 분류하며, 레크레이션관광자원을 포함

21) 김홍운(1989). pp. 46-55.

22) 한국관광개발연구원(1994). 「한국관광년감」, p. 444.

문화체육부(1995). 「1995년도 관광동향에 관한 년차보고서」, p. 85.

23) 서경립(1977). “제주도 관광자원의 활성화 방안”, 논문집 제9집, 제주대학교, p. 656.

24) 김홍운(1989). pp. 66-87.

시켜 5가지로 분류하기도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관점을 참고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관광자원을 관광객으로 하여금 관광동기를 유발시키는 모든 대상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여기에는 관광기반시설(교통, 통신, 도로시설 등)을 제외한 위락활동을 위한 관광시설도 포함시켰다. 또한 관광자원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그 특색을 설명하기 위하여 관광자원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자 한다.

관광자원 분류에 있어서 1차구분은 생성원인에 의하여 문화적 관광자원과 자연적 관광자원으로 크게 구분하였다. 2차구분은 자원의 생성시기 및 특색에 따라서 문화적 관광자원은 유형문화유산, 무형문화유산, 산업관광시설, 레크레이션시설로 분류하고, 자연적 관광자원은 지형, 기후, 생태계 등으로 분류하였다. <표 1>참고

<표 1> 관광자원의 분류

구분	관광자원 유형	관광자원의 내용
문화적 관광자원	유형문화유산	국보,보물,사적,지방문화재,고적,가옥,사찰,묘지,민속유물,역사적 유래가 있는 유형문화유산
	무형문화유산	설화,민요,무속신앙,세시풍속 및 민속놀이,음식,공예기술,무용,영상자료 등
	산업관광시설	미술관,박물관,식물원,정원,농원,목장,선착장,쇼핑시설,공연장,해녀작업장 등 산업시설
	레크레이션시설	수영장,사격장,수렵장,골프장,운동시설,놀이시설,낚시터,해수욕장,승마장 등 스포츠및 오락과 관련된 관광시설
자연적 관광자원	지형	토양,암석,지질,지형적 특색
	기후	관광객을 유인하는 기후적 요소
	생태계	식생,동물상

III. 제주도의 지리적 개관과 관광개발

A. 자연 및 인문환경

1. 자연환경

제주도는 경도상으로 126° 08' 43" E에서 126° 58' 20" E, 위도상으로는 부속도서를 제외하고 33° 11' 27" N에서 33° 33' 50" N의 범위에 위치한다. 기후적 위치는 쾨펜의 기후구분에서 온대계절풍고온습윤기후(Cfa)에 속한다. 제주도는 한반도 남서해상에 위치한 孤島로서 북쪽 목포와의 거리는 141.6km, 북동의 부산과의 거리는 286.5km, 동쪽의 일본 대마도와의 거리는 255.1km 떨어져서 위치하고 있다. 한국, 중국, 일본 등 극동지역의 중앙부에 위치한 관계로 주변국가로부터 관광지로서 접근이 용이하여 60년대이후 비약적 발전을 하여 왔다. 총면적은 1,824.9km²로서 제주도 본섬을 비롯하여 비양도, 우도, 상·하추자도, 횡간도, 추포도, 가파도, 마라도 등 8개의 유인도와 54개의 무인도로 구성되어 있다²⁵⁾.

제주도의 지질은 신생대 제3기 말 플라이오세의 서귀포층과 신생대 제4기 플라이스토세에 속하는 성산층, 화순층, 신양리층 등의 퇴적암층과 현무암, 조면암질안산암, 조면암 등의 화산암류, 그리고 기생화산에서 분출된 화산쇄설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도는 화산도로서 화산활동은 크게 5단계의 분출윤회로 구분되며 총 79

25) 제주도(1993). 「제주도지」 제1권, pp. 41-46.

회 이상에 달하는 용암분출이 관찰된다. 본도의 형성과정은 5단계의 화산활동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시기별로 구분하면 제 1 단계 : 제 3기말의 기저현무암의 유출과 서귀포층 퇴적기인 기반암의 형성기, 제 2 단계 : 제 2 분출기에 형성된 용암대지의 형성기, 제 3 단계 : 신양리층 퇴적 이후 백록담 화구 가까이에 산재되었던 화구들에서의 분출에 의하여 형성된 순상화산체의 형성기, 제 4 단계 : 제 4 및 제 5 분출기에 있었던 백록담 화구로부터의 중심분출에 의하여 형성된 한라산 주화산체의 형성과 후화산활동의 산물인 기생화산의 형성기, 제 5 단계 : 용기와 화산원지형이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차지형에로의 변천기이다²⁶⁾. 즉 화산분출의 전반기에는 全域噴出이 있었으나 후반기에 들어서는 백록담의 화구를 중심으로 하여 유동성이 큰 현무암질용암이 넘쳐흘러 중심부분을 제외하고는 제주도전체를 평탄하게 하고, 특히 동·서사면은 경사도 3도이하의 완경사를 이루는²⁷⁾ 순상화산을 이루게 하였다. 산계는 크게 보아 한라산을 정상으로 하는 순상화산체를 이루고 있다. 이 방패狀의 主火山體上에 400여좌에 달하는 기생화산들이 산재되어 있다. 기생화산은 산방산이나 삼도 등을 제외하고 대체로 원추형 또는 정상부가 파괴된 원추형을 이룬다²⁸⁾. 구성물질은 일부는 용암류와 화산쇄설물로 되어 있으나 300여좌에 달하는 대부분의 기생화산은 화산쇄설물로 된 분석구이다.

본도의 수계는 한라산을 정점으로 하여 방사상수계를 이룬다. 그러나 경사가 완만하고 용암대지가 발달한 동·서사면보다 급경사인 남·북사면을

26) 원종관(1975). “제주도의 형성과정과 화산활동에 관한 연구”, 이학논집 제1집, 건국대 응용과학연구소, pp. 12-14.

27) 김상호(1963). “제주도의 자연지리”, 지리학 제1호, p.5.

28) 원종관(1975). p. 6.

따라 남류 또는 북류한다. 남사면의 하천들은 하류에서 깊이 30-40여m에 달하는 계곡을 형성하는 하천이 많다. 반면에 북류하는 하천들은 하류에서 하폭은 20-30m에까지 달하나 깊이는 3-5m에 불과하다. 이러한 양사면상에서의 하곡발달의 차이는 북안에 비해 남해안이 용기의 정도가 현저하고 강수량이 많아 하각작용이 활발하였으며, 남사면의 하상 및 곡벽은 조면암 또는 조면암질안산암으로 주상절리가 발달하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남해안에는 폭포와 해안단에 등이 발달하고 있다²⁹⁾.

제주도의 연평균기온(1961년 이후)은 11.7℃로 겨울에도 0℃이하의 기온이 드물게 나타난다. 1961-1990년 사이의 연평균 강수량은 2,044.2mm로 국내 최다우지이다. 강수의 계절적 분포를 보면 연 강수량의 약 43%가 6, 7, 8월에 내리고 있으나 국내 타지역에 비해 낮은 집중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봄장마와 가을장마, 태풍, 지형성 강설 등으로 인하여 계절별 강수가 상대적으로 고르게 분포하기 때문이다³⁰⁾.

제주도의 탁월풍은 동풍형, 북서풍형, 남서풍형, 남동풍형의 4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 제주시에 있어서는 겨울철의 북서풍이 最多風이 되고 있으며, 서귀포의 最多風은 북동풍이 되고 있다. 이와같이 기온, 강수량, 탁월풍의 지역적·계절적 차이는 한라산의 지형적인 영향때문이다³¹⁾.

29) 원종관(1976). “제주도에 분포하는 화산구의 구조해석에 관한 연구”, 이학논집 제 2집, 건국대 응용과학연구소, pp. 5-6.

30) 제주도(1993). pp. 76-84.

31) 이병설(1979). “제주도의 바람에 관한 연구”, 지리학논총 제6호, pp. 11-18.

2. 인문환경

제주도의 행정구역은 2시 2군 7읍 5면 31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1990년말 현재 제주도의 총인구는 514,436명으로 市部인구는 62.4%를 차지한다.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1980년이후 1.12%로 전국의 1.60%보다 낮으며 시부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군부인구는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인구밀도는 $282/\text{km}^2$ 로 전국의 $438/\text{km}^2$ 보다 훨씬 낮다. 남녀의 구성비는 1990년 현재 49.4 : 50.6으로 1980년의 48.9 : 51.1보다 남자의 구성비가 다소 높아졌으나 전국의 50.3 : 49.7과 비교할 때는 아직도 여자의 구성비가 높다.

총 고용인구는 1980년 188,028명에서 연평균 2.3%씩 증가하여 1990년에는 236,000명에 이르고 있다. 1차산업의 고용인구는 총 고용에 대한 비율이 1980년의 68.6%에서 1990년 41.9%로 감소되었으나 전국의 18.3%에 비해서는 매우 높다. 1차산업의 지역총생산에 대한 비율도 1990년 36.1%로서 전국 9.1%에 비해 3.9배나 높아 1차산업 의존도가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2차산업의 고용인구는 1980년 5.3%에서 1990년 3.8%로 낮아졌다. 이는 전국 27.3%에 비하여 매우 낮은 비율로서 제주도의 2차산업이 부진함을 증명하고 있다. 3차산업의 고용인구는 1980년 26.1%에서 1990년 54.2%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관광산업의 개발과 관광객의 증가때문이다.

한편 1960년대부터 꾸준히 추진되어 온 제주도 관광개발은 지역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제주도 관광객수를 보면 1972년 28만4천명에서 1992년 342만3천명으로 증가하였으며, 관광수입도 21억원에서 7,970억원으로 증가함으로써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였다. 또한 관광개발은 지역주민의

고용증대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관광산업 관련분야의 취업자는 1972년 1만1천명에 불과하였으나 1992년에는 16만2천명으로 증가하여 지역총고용의 65.3%를 차지하게 되었으며³²⁾, 산업구조를 변화시켰다. 그외에 관광산업과 관련된 교통·통신시설의 발달, 유통구조의 개선, 이로 인한 수송비의 절감과 시간의 단축 등 파급되는 다양한 효과는 제주지역의 경제적·사회적 구조를 변화시켰다.

문화적으로는 본토와 오랫동안 격리되었던 관계로 독특한 민속, 전설 등의 전통문화와 토속적 양식이 전승·보전되고 있다³³⁾.

제주도 지역의 토지이용은 한라산을 중심으로 한 동심원적 이용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해안에서 표고 300m까지는 취락지 및 경작지, 300-500m는 초지, 500m이상은 임야지대로 구분된다. 전 인구의 90%이상이 표고 200m이하의 해안지대에 거주하고 있다. 북쪽은 제주시, 남쪽은 서귀포시가 지역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으나 동서부지역은 도시발달이 미흡하여 중심지기능이 취약하다. 지목별 토지이용상황은 1991년 현재 전답 21.6%(답 0.5%), 임야 52.2%, 과수원 6.9%, 대지 2.3%, 도로 3.5%, 기타 13.5%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과수원의 면적은 전국 과수원 면적의 33.5%를 차지하고 있다.

32) 제주도(1973). 「통계연보」, pp. 130-131.

----- (1996). 「제주통계연보」, pp. 212-213.

33) 제주도(1994). 「제주도종합개발계획」, pp. 9-14.

B. 관광자원 개발역사

제주도는 육지부와 비교하여 아직도 맑은 공기와 경관, 오염되지 않은 바다를 보유하고 있어 섬 전체가 천혜의 관광환경을 유지하고 있다. 한라산을 정점으로 한 산악지대와 광활한 중산간지대 그리고 수려한 해안지대 및 도서지역을 포함한 해상 등 자연환경이 수직적으로 연결되어 2-3계절의 자연환경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자연환경의 특징으로 인하여 지상(등산·승마·경관감상), 지하(동굴탐험), 해안(낚시·해수욕)과 수중(스쿠버) 및 항공(헬글라이딩) 등에서의 각종 야외위락활동이 가능하다. 또한 제주도의 문화재는 육지부와 비교하여 색다른 제주도의 전통과 풍습 및 고유의 색을 지니고 있어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높이 평가받고 있다. 특히 무형문화재의 경우, 육지부와는 다른 형태를 지니고 있어 유형문화재에 비해 높은 관광성을 지니고 있다. 1991년말 현재 제주도내에는 국가지정문화재 27점, 도지정문화재 61점이 지정되어 있다. 지정문화재의 주종은 천연기념물 및 기념물이며 그 중 대부분이 자연경관 및 식물이다. 제주도의 지정역사유적으로는 기념건물 9점, 성지 13개소, 봉수대 25개소, 연대 38개소, 전적지 88개소 등이 도처에 산재해 있다³⁴⁾.

이와같이 관광자원의 보고인 제주도가 관광지로서 가치가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이전이었으나 육지와의 교통이 불편하고 도로 등의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관광지로서 대중화되지 못한채 한라산 등산을 원하는 젊은 층들에 의하여 간간히 찾아지곤 하였다. 그러나 1962년 제 1차 경제개발 5

34) 제주도(1985). 「특정지역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제1권 「관광개발계획」, pp. 31-60.

제주도(1994).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pp. 571-577.

개년계획이 추진되면서 제주개발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갖게 되어 교통수단과 시설을 개선하기 시작하였다. 그후 20여년간 제주도는 정부주도아래 관광을 선도산업으로 하는 지역개발이 수행되었다.

지금까지 수립된 제주도 관광개발계획은 1964년 제주도건설종합개발계획과 1973년 제주관광종합개발계획을 기본으로 추진되어 왔다.

정부가 제주지역개발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것은 1964년 제주도건설종합계획이 수립되면서부터이다. 이 계획은 개발의 기본방향을 관광에 중점을 두고, 제주시·한라산·서귀읍·성산·대정 등 5개지역을 관광거점으로 하여 해당지역의 각종 관광투자를 합리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1966년에는 제주전역이 특정지역으로 지정되었다. 기본방향은 지역내 부존자원을 개발하여 전국수준과의 지역간 격차를 시정하는데 두었으며, 관광개발계획에 있어서 목표년도(1996년)에 내국인 관광객 50만명, 외국인 관광객 10만명 유치를 목표치로 설정하고 이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각종 기반시설 계획을 수립하였다. 1969년 한라산 국립공원이 지정되었다.

제주종합개발이 본격적으로 착수된 것은 1970년대 초에 이르러서이다. 1971년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72-1981)이 확정·공포되면서 제주도가 8중권 중 1개 권역으로 구획됨에 따라 지역기능으로서 관광기능을 분담받아 그 하위계획으로서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10개년계획」이 수립·추진되었다. 이 계획은 관광주도형 지역개발의 기본계획이 되어 정부의 집중투자가 이루어졌는데, 그 결과 관광산업을 기본산업으로 구축하는데 기여하였다³⁵⁾. 관광개발부문은 주요관광자원의 합리적 개발로서 국제적 관광지로 조성할 것을

35) 김태보(1991), “제주도 종합개발의 성과와 문제점”, 사회발전연구 제7집, 제주대학교, p. 366

기본방향으로 하여 한라산국립공원, 자연경관위주의 관광지, 민속관광자원 등의 개발과 지역별 관광기지를 조성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1971년 용연, 만장굴, 안덕계곡, 정방폭포, 천제연폭포가 지정관광지화되었다. 1973년 청와대관광개발계획단에 의하여 제주관광 종합개발계획(1973-1981)이 수립되었다. 본 계획은 제주도 관광을 종합적으로 다룬 최초의 계획으로서 제주도를 국제수준의 관광지로 조성하는 것을 기본목표로 하고 있다. 각 지구별 개발계획의 개요는 첫째, 중문관광지는 계획대상면적 1000천평, 계획대상인구 20,000명, 숙박인구 4,500명을 목표로 계획이 수립되었다. 유치할 주요시설은 민속공연장, 카지노, 수중전망대, 골프장, 승마장, 수상레크레이션시설 등이다. 둘째, 제주시 주변관광지구는 제주시를 국제관광도시로 계획하였으며 제주시에 590실의 관광호텔을 설치하고 연동지구에 골프장을 계획하고 삼성혈지구에 민속박물관, 식물원 등의 시설을 유치토록 계획하였다. 셋째, 서귀포주변 관광지구는 도시경관을 정비하고 자연자원의 보전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주요시설내용은 하니문하우스지구에 500실규모의 관광호텔, 요트 및 유람선 선착장, 문섬·섬섬지구에 낚시터, 삼매봉지구에 전망대 등을 계획하였다. 넷째, 그외에 산악관광지구, 해안관광지구, 동굴관광지구, 문화관광지구 등 각종 계획이 수립되었다.

1970년 이전에는 제주도를 국제수준의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기반시설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으며, 1970년대에는 제주도의 각 관광지별 자연환경의 보전과 조화를 전제로 지형적 특색이 뚜렷한 자연경관자원-용연, 만장굴, 안덕계곡, 천제연폭포, 정방폭포-을 지정관광지로 조성하였다. 서귀포해안경관을 이용한 중문관광단지 및 협재·함덕 해수욕장 개발 등을 계획하였다. 선돌, 구구곡, 사라봉을 도시공원으로 조성하려는

계획도 수립하였다. 그외에 제주도의 민속자료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1976년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을 계획하였다.

1983년 「특정지역 제주도종합개발계획」(1985-1991)이 수립되어 1985년 확정되었다. 이 계획은 관광개발계획과 지역개발계획의 2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광개발계획은 관광이 타 부문의 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광자원의 활성화, 관광자원시설의 확충, 관광지원체제의 정비에 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이 계획은 개발목표를 관광지개발을 통한 위락공간 창출, 체류형관광지로의 전환, 기상조건의 극복과 4계절관광화, 국제적 관광여건의 조성, 자연경관보전, 민속자원의 발굴·보전에 두고 있다³⁶⁾. 이상과 같은 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3개 관광단지(중문, 성산포, 표선)를 집중개발하되, 중문단지는 국제수준의 관광지로 개발하고, 성산포관광단지는 장기체류형 위락시설을 설치하여 동부관광권의 중추적 해양관광단지로 개발하며, 표선민속촌단지는 제주 특유의 민속을 관람할 수 있도록 대규모 민속위락단지로 개발하도록 되어 있다. 기타 경유형관광지로 서귀포, 강정, 돈네코, 사라봉, 용연, 함덕, 만장굴, 송당, 남원, 협재, 차귀도, 송악산, 1,100고지, 한라산국립공원 등 27개 관광지구를 개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70년대 자연경관 중심의 관광지 개발과는 달리 제주도 민속의 관광자원 가치를 인식하기 시작하여 성읍민속마을 보전 등 이와 관련된 몇개의 계획이 수립되었다. 또한 다수의 관광객을 체류시키기 위하여 산천단과 사라봉에 종합휴양지와 위락공원 조성을 계획하였다. 그외에

36) 부만근(1991). “제주지역 개발의 현재와 미래-관광개발을 중심으로”, 사회발전연구 제7집, 제주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p. 444.

관광객 유치에 위한 골프장 · 승마장 · 수중전망대 · 낚시터 등 각종 레크리에이션시설을 비롯하여 다양한 관광자원을 개발함으로써 국제적인 관광지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계획이 목표년도의 관광수요를 너무 높게 책정하여 시설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였다. 산천단국민관광휴양지와 사라봉공원조성계획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개발 관광지마다 유사한 시설들을 유치함으로써 특색있는 관광지 개발에 실패하였으며 자연자원을 파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더구나 투자재원의 부족으로 자원개발이 원활하게 실시되지 못하였다.

1989년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재검토가 이루어진 후, 1992년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제주도종합개발계획(1994-2001)이 수립되었다.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의 관광개발부문에서는 목표년도의 관광객 유치목표를 530만명(내국인 470만명, 외국인 60만명)으로 잡고 있다. 관광지 개발계획은 제1차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에서 지정되었던 3개단지 27개지구에 대해 재검토를 하고 22개지구를 해제함과 동시에 5개지구를 신규로 지정하여 총 3개단지, 10개지구로 재정비하였다³⁷⁾. 3개단지는 중문관광단지, 성산포해양관광단지, 표선민속단지이며, 10개관광지구는 돈내코, 함덕, 만장굴 남원, 용머리, 봉개휴양림, 교래농어촌휴양지, 송악산, 묘산봉, 세화 · 송당온천지구이다. 3개 관광단지와 10개 관광지구의 주요 개발내용과 유치시설은 <표 2>와 같다. 기존의 관광지들은 유치되어 있는 시설들을 재정비하고 휴양 · 문화시설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개발을 계획하고 있으며, 5개 신규관광지의 개발방향을 살펴보면 송악산지구는 교양 · 문화기능, 교래농어촌휴양지와 봉개휴양림, 세화 · 송당온천지구는 휴양과 체류기능, 묘산봉지구는 스포츠 · 레저기능을 수용하

37) 제주도(1995). 「제주관광메뉴얼」, pp. 273-286.

도록 계획하고 있다. <표 2>참고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국민들의 소득과 여가시간의 증가로 인하여 관광객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올림픽 개최와 경제성장으로 한국의 이미지가 개선됨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도 증가하였다. 제주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수가 1991년 320만명으로서 예상인원 250만명을 크게 상회하였으며 2001년에는 530만명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국민소득 증대에 따라 여가의 형태도 다양화하고 고급화되고 있다. 이와같은 관광성향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0년대에는 대형공연장, 대형박물관, 식물원, 미술관, 관광농원, 관광목장, 휴양림, 관광체험어장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있다. 이전에 제주도의 독특한 자연자원을 감상하는 정도의 단순한 관광으로부터 탈피하여 자연속에서 휴양하면서 자연을 즐기고 이용하는 다양한 형태의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자원을 개발하는 것이다. <표 3>참고

이상에서 살펴본 제주도 관광개발계획의 연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60년대에는 제주도를 국제수준의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을 수립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1970년대에는 지형적 특색이 뚜렷한 자연경관자원을 중심으로 관광지를 조성하는 한편 도시공원과 민속자료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에는 제주도 민속자원 개발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다수의 관광객을 체류시키기 위하여 종합휴양지와 위락공원 조성을 계획하였다. 그외에 골프장, 승마장, 수중전망대, 낚시터 등 다양한 레크레이션시설을 개발하였다. 1990년대에는 80년대 수립한 휴양 및 레크레이션시설 개발계획을 시행하는 한편, 대형공연장, 대형박물관, 식물원, 미술관, 관광농원, 관광휴양목장, 관광체험어장 등을 개

<표 2> 제주도종합개발계획(1994-2001년)에 의한 관광지 개발내용

관광지	산업 및 문화관광시설	스포츠 · 레크레이션시설	숙박시설	상업 및 기타시설
중문 관광 단지	해양수족관,관광식 물원,관광어촌,국제 회의장,전망휴식소, 공원	골프장,마리나시설,종 합레크레이션시설,해 수욕장	관광호텔,콘도 미니엄	상가,면세점,관 광센타,한국관, 주차장
성산 포해 양관 광단 지	해양박물관,전망대, 관광농원,대형수족 관	스포츠센타,마리나시 설,승마장,해양스포츠 시설,유희시설,피크닉 장	관광호텔,콘도 미니엄,방갈로 여관	활어센타,농수 산물직판장,종 합상가
표선 민속 관광 단지	전통가옥,관헌건축 물무속신앙건축물, 민속공연장,국제민 속촌시설,박물관,선 사동굴전시관	유희시설,해수욕장	호텔,콘도미니 엄,여관,민박	대식당,상가,농 수산물직판장, 주차장,광장
돈내 코관 광지	한국식정원,야외공 연장	테니스장,다목적운동 장,유년활동장,체력단 련장,피크닉장	콘도,관광호텔 야영장	상가,매점,주차 장,세면장
함덕 관광 지	낙시선계류장,	운동 및 유희시설,어 린이놀이터,해양레저 시설	관광호텔,콘도 미니엄,여관	상가,식당,주차 장,광장,샤워탈 의장
만장 굴관 광지	관광농원,동굴전시 관민속촌 및 박물관, 민속공연장,조경 휴식시설	산책로,피크닉장	관광호텔,일반 호텔	상가,농수산물 직판장,주차장
남원 관광 지	영화박물관,야외셋 트장,과수원,관광농 원,	체력단련장,다목적운 동장,피크닉장,테니스 장,수영장	관광호텔,일반 호텔,콘도미니 엄,여관	농수산물직판 장,활어센타,매 점,잔디광장,주 차장
용머 리관 광지	화훼단지,하멜기념 비전망대,사진촬영 소			상가,매점,농수 산물직판장,해 산물판매장,주 차장

봉개 휴양 림관 광지	노인전용휴양시설, 의료보건센터 및 치료시설,노인거주 시설,생산시설,전망 탑	골프장,수영장,게이트 볼장노인유희시설	가족호텔,콘도 미니엄	상가
교래 농어 촌휴 양지	유기농업시설,표고 재배장,화훼전시장, 과수원,주말농원	간이골프장,종합스포 츠센터,승마장,행글라 이더장,잔디썰매장,어 린이농이시설,테니스 장	관광호텔,콘도 미니엄,여관, 방갈로	상가,토속음식 점,토산품직판 장,식당,주차장 ,광장
묘산 봉관 광지	자연학습장,민속문 화공연장,화훼단지, 야생정원,과학기술 공원관광농원	전통수렵장,테니스장, 롤러스케이트장,잔디 썰매장,운동장,오토바 이경주장,골프장,승마 장,競犬場,종합레포츠 센터,유희시설	호텔,콘도미니 엄,전통초가호 텔,자동차캠프 장,방갈로,야 영장,모텔,별 장,휴양아파트	종합전시장,토 산품점,음식점, 종합상가
송악 산관 광지	전적기념공원,휴식 공원,해양수족관,전 망대,향토역사관,선 착장	해양스포츠시설,운동 장,게이트볼장,테니스 장,농구장배구장,해수 풀장	호텔,콘도미니 엄,방갈로,여 관,민박	토산품판매장, 농수산물직판 장,관광식당,활 어센터
세화 송당 온천 지구	온천보양원,단체수 련원,가족휴양시설	스포츠센터,기계유희 시설,옥외수영장	호텔,콘도미니 엄,여관	종합상가

자료 : 제주도(1994), 제주도 종합개발계획과 투자안내

<표 3> 제주도 주요관광지 및 관광자원 개발 연혁

개발 연도	관광지	관광자원 내용	관광자원 유형
1964	제주민속박물관	제주민속유물과 민속서 전시	산업관광자원
1966	한라산천연보호구역 지정	한라산의 자연자원과 등산로 등을 자원화	지형 및 생태계
1971	만장굴, 돈내코, 용 머리, 천제연폭포	1966년 천제연난대림지대 천연기 념물로 지정	지형
1978	대유랜드	중산간에 건설한 수렵장	산업관광자원
1979	오라컨트리클럽	제주관광종합개발계획에 의해 개 장,국제규모의 36홀코스 골프장	스포츠·레크레이 션시설
1980	하멜표류기념비	역사학습장	산업관광자원
1981	함덕해수욕장		스포츠·레크레이 션시설
	목석원	제주산 자연석과 고사목 전시	산업관광자원
1982	삼성혈	1964년 국가지정사적지로 지정	문화유산
	천제연폭포	1966년 난대림지대 천연기념물로 지정	지형 및 식물상
1984	제주도민속자연사박 물관	제주의 민속유물,동식물,지질,해양 생물 등의 자료를 관광자원화	산업관광자원
	성읍민속마을	중요민속자료로 지정, 일관헌-1975 년보수, 지방문화재 지정	문화유산
	산방굴사,안덕계곡, 일출봉	1966년 산방산암벽식물지대와 안 덕계곡상록수림지대를 천연기념물 로 지정	지형 및 식물상
1985	협재해수욕장		스포츠·레크레이 션시설
1986	항몽유적지	삼별초의 항전지, 지방기념물로 지 정, 1980년 항파두성 보수	문화유산
	제주컨트리클럽	18홀규모의 골프장	스포츠·레크레이 션시설
	제주관광해양수족관	웨어리레저센타 개발을 목적	산업관광시설
	신천지미술관	제주시에서 가까워서 관광객유인 에 유리함	
	비자림	비자나무 군락지, 1966년 천연기념 물로 지정, 1992년 관찰로 개설	식물상

1987	제주조각공원	산방산을 배경으로 조각품 전시	산업관광시설
1988	협재굴		지형
	산굼부리		지형 및 식물상
1989	남원해안		지형
	제주관광식물원	온실과 외국의 정원 감상	산업관광시설
1990	제주경마장	제주재래마의 경마관람, 놀이시설	스포츠 · 레크레이션시설
1991	중문오렌지파크	농수산부지정관광농원	산업관광시설
	성산포관광지구	해양관광단지로 지정	지형
1992	분재예술원	전문분재공원	산업관광시설
1995	파라다이스골프클럽		스포츠 · 레크레이션시설
	해변공연장	대형공연시설로 휴식과 문화공간	산업관광자원
	제주교육박물관	제주교육의 변천자료와 생활상 자료 전시	
	서귀포자연휴양림	한라산국립공원 내 법정악주변 산림지를 개발	
	제주온천리조트	탄산수온천수 개발	
	동북리관광체험어장	어장을 관광자원화	
1996 (예정)	제주관광민숙관	야간관광코스로 개발	산업관광시설
	국립제주박물관,영 화박물관	제주고유의 역사 · 문화유산과 영화관련자료 및 야외세트 전시	
	제주절물자연휴양림	국유림과 절물오름을 휴식공간 및 자연학습장으로 개발	
	관광휴양목장	마을공동목장을 관광자원화	
	하도리관광체험어장		

자료 : 제주도(1985), 특정지역 제주도종합개발계획

----- (1994), 제주도종합개발계획

----- (1996), 문화체육현황(문화예술 · 문화재 · 체육지원)

-----, 주요행정현황(관광문화국)

한국이동통신제주지사(1995), 제주관광가이드

-----, 제주의 문화유산

개발하여 80년대 이전의 자연감상으로부터 장기간 체류하면서 자연을 이용하는 방향으로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관광지마다 종합휴양 및 오락센타건설을 계획하고 스포츠와 레크레이션시설을 증대함에 따라 수족관, 관광농원, 스포츠시설, 민속촌, 박물관 건설등의 유치시설이 중복되는 관광지가 많아서 관광지의 지역별 특색과 차별성이 부족하다. 또한 개발계획을 이용한 외지인의 토지매입과 그에 따른 지가상승, 지역주민과의 갈등, 민간투자의 저조, 국내외 경기의 침체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 개발이 종합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제주도내에는 육지부와는 다른 독특한 무형문화유산이 도처에 산재되어 있으나 정비가 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관광코스화되지 않아 높은 관광유인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 민속문화행사와 무형문화재의 경우 그 가치에도 불구하고 행사를 위한 시설부족과 활성화의 미흡으로 인하여 관광자원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같은 무형문화재의 관광자원화 또한 제주도 관광자원개발의 주요 과제가 될 것이다.

C. 제주도 관광객의 관광성향 추이

1. 제주도 관광객의 관광성향 추이

관광자원은 관광객의 관광동기와 관광욕구를 충족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관광산업의 발달에 가장 중요한 관광요소이다. 뿐만 아니라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욕구에 의해 끊임없이 개발할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하다. 따라서 관광객의 관광성향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관광자원의 개발과 그에

따른 관광산업발달에 크게 공헌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본 장에서는 제주도 관광개발이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던 1980년대와 관광산업이 본 궤도에 오르기 시작한 1990년대의 관광객의 관광동기와 성향을 비교하여 그 변화를 파악하고자 한다. 관광객의 성향추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요 관광지별 관광객의 증감추이를 살펴보았다. 관광지는 통계자료수집이 용이한 지역으로서 행정기관 및 관광협회에서 주요 관광코스로 지정하고 있는 관광지를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표 4>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주도를 방문하는 전체 관광객수는 1989년부터 1994년까지 5년동안 매년 7.0%씩 증가하였다. 반면에 같은 기간동안의 관광지별 관광객수의 증감추이를 살펴보면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관광자원의 유형별로 그 증감상태가 뚜렷이 구별된다. <표 4><표 5>참고

문화유산자원을 찾는 관광객수는 감소현상이 뚜렷하다. 특히 제주도의 대표적인 사적지인 삼성혈을 비롯하여 항몽유적지 등 유명한 사적지를 방문하는 관광객수의 증가율이 가장 낮게 나타난다.

문화유산 다음으로 관광객 감소현상을 보이는 곳은 지형적 특색을 지닌 관광지들이다. 지형 및 자연경관이 우수한 관광지를 방문하는 관광객수는 1994년 전체 관광객의 66.8%를 차지하여 제주도 관광자원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다른 유형의 관광자원에 비하여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관람객수의 증가율은 산굼부리를 제외하고 매년 증가율이 5%이하로써 전체 관광객수의 증가율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만장굴, 안덕계곡, 성산일출봉 등은 매년 관광객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산업관광시설, 스포츠·레크레이션시설 및 식물상의 특색을 지닌 관광자원을 이용하는 관광객수는 지형적 관광자원의 관람객수보다 비록 숫자는 적

으나 그 증가율이 비교될 정도로 높게 나타난다. 산업관광시설에 속하는 관광지중에서 신천지미술관과 제주관광식물원의 관람객수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난다. 등산, 골프 등 스포츠·레크레이션시설자원을 이용하는 관광객수는 매년 증가율이 10%이상으로서 전체 관광객의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으며 골프장의 이용객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 이유는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의 증대로 인하여 항공교통의 이용률이 높아졌으며, 본토의 교통체증에 의한 시간거리의 증가로 인하여 항공교통의 신속함과 편리함이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사격장의 경우 그 이용객수는 1982년 약 2천명에서 1992년 21만3천명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대표적인 경우이다. 비자나무 군락지로서 다양한 식물상을 볼 수 있는 비자림도 매년 22%이상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비자림보다는 인위적으로 만든 관광식물원을 관람하는 관광객수가 훨씬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관광식물원은 많은 투자를 통하여 관광객의 취향과 흥미를 자극하기 위한 식물들을 인위적으로 조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편안하고 쾌적하게 관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시설들을 설치하였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표 4> 제주도의 전체 관광객수

(단위 : 명)

	1989년	1990년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전년대비 증가율 평균 (%)
전체 관광객수	2,642,613	2,992,096	3,204,614	3,421,708	3,463,908	3,692,548	7.0

자료 : 제주도, 「제주통계연보」, p. 212.

<표 5> 주요 관광지의 관광객수³⁸⁾

(단위: 천명)

관광자원 유형	관광지	연도						전년대 비증가 율평균 (%)
		1989년	1990년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문화유산	삼성혈	791	832	800	782	628	563	-6.2
	제주도민속자연사 박물관	1,180	1,163	1,153	1,184	1,125	1,133	-0.8
	항몽유적지	251	236	160	161	149	180	-4.8
	제주민속촌	237	310	328	307	238	230	0.9
산업관광시설	목석원	613	677	698	759	747	831	6.4
	제주조각공원	181	174	170	166	160	174	-0.7
	신천지미술관	125	117	234	260	194	189	15.3
	해양수족관	462	592	659	636	515	595	6.5
	제주관광식물원	80	585	871	1,058	1,252	1,312	144.9
스포츠· 레크레이션시 설	등산	215	240	241	312	402	356	11.8
	해수욕장	428	519	380	370	212	280	-3.8
	골프장	51	58	67	94	115	100	78.8
지형	천지연폭포	1,430	1,627	1,743	1,809	1,685	1,715	3.9
	천제연폭포	1,289	1,418	1,501	1,567	1,407	1,369	1.6
	정방폭포	694	859	663	704	774	822	4.7
	만장굴	1,309	1,174	1,328	1,134	1,126	1,084	-3.2
	협재굴 및 쌍용굴	1,236	1,325	1,324	1,384	1,296	1,373	2.2
	산굼부리	1,031	1,185	1,247	1,368	1,305	1,449	7.3
	산방굴사	1,070	859	1,163	1,173	1,188	1,222	4.1
	안덕계곡	51	26	27	18	16	25	-6.7
	성산일출봉	1,261	1,313	1,311	1,344	1,287	1,193	-5.1
	한라산국립공원	350	362	386	428	387	501	8.2
식물상	비자림	67	46	56	117	92	126	23.0

자료 : 제주도, 「제주통계연보」, pp. 228-244.

38)(1) 관광객수와 증가는 내·외국인을 포함한 것으로 반올림한 수치이다.

(2) 비교연도를 1989년으로 제시한 이유는 제주민속촌, 해양수족관, 신천지미술관, 제주조각공원, 제주관광식물원이 1989년부터 개장되어 그 이전의 통계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3) 해수욕장은 이호·곽지·협재·함덕·김녕·화순·중문·표선·신양·하모해수욕장의 이용객수를 합친 수치이다.

그러나 같은 관광자원 유형에서도 관광객수의 증가율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제주조각공원과 신천지미술관, 만장굴과 협재굴 및 쌍용굴, 산굼부리와 성산일출봉이 이와같은 경우에 해당된다. 제주조각공원과 신천지미술관은 산업관광시설로서 인위적으로 조성된 야외정원과 미술관이라는 동질성을 지니고 있으나 제주조각공원은 관광객이 매년 0.6%씩 감소하고 있으며 신천지미술관은 매년 15%씩 증가하고 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제주조각공원은 남제주군 안덕면 내륙에 위치한 반면에, 신천지미술관은 제주시에서 인접한 애월읍 서부산업도로변에 위치해 있어서 제주시에서 접근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규모가 적은 편이어서 관광하기에 어려움이 없으며 신혼여행객의 사진촬영장소로 많이 이용되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용암동굴인 만장굴과 협재굴 및 쌍용굴의 경우 만장굴은 관광객수가 매년 3%씩 감소하고 있으나 협재굴과 쌍용굴은 매년 2%씩 증가하고 있다. 만장굴은 북제주군 구좌읍 내륙에 위치해 있어 교통이 불편하고 주변에 다른 관광요인이 없으나, 협재굴 및 쌍용굴의 경우 북제주군 한림읍 도로변에 위치해 있어서 교통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한림공원과 협재·김녕해수욕장이 인접해 있어서 다양한 관광요인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관광객을 유인하기에 유리하다. 기생화산인 산굼부리와 성산일출봉의 경우 산굼부리는 관광객이 매년 7%씩 증가하고 있으나 성산일출봉은 매년 5%씩 감소하고 있다. 위치적 특색을 보면, 산굼부리는 북제주군 조천읍 내륙에 위치하고 성산일출봉은 남제주군 성산읍 해안도로변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산굼부리는 만장굴과는 달리 주변에 기생화산군이 분포하는 중산간지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경관이 우수하여 사진촬영장소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와같은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동일한 관광자원의 유형일지라도 접근도의

정도에 따라 내륙보다는 해안지역에, 단일 관광자원만 있는 지역보다는 주변에 다양한 관광시설이 인접한 지역에, 주요 거점도시인 제주시와의 인접 정도에 따라 관광객의 이용 증가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주도 관광객들은 숙박시설이 밀집해 있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관광 거점도시로 이용하면서³⁹⁾ 같은 유형의 관광자원일 경우에는 접근이 용이하고 다양한 관광시설이 인접한 관광지를 주로 관람·이용하는 경향이 있다.

2. 관광객의 관광성향 비교

제주도 관광객의 관광성향 추이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의 관광성향은 문화유산이나 자연경관을 관람하는 정적인 형태의 관광으로부터 인위적으로 형성한 산업관광시설이나 스포츠·레저시설을 이용하는 활동지향적인 관광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전국민의 관광동기와 가치관의 변화와 유사한 현상이다. 국민들의 관광성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한 전국민여행동기조사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 '84년에는 자연/명소의 구경/유람이 4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그 비율이 점차 감소하여 '91년에는 34.6%로 낮아졌다. 반면에 피서/피한, 피로/긴장해소/오락/유흥, 스포츠 등은 높아져 자연/명소에 치중되어 온 관광의 목적이 다양하게 분산되고 있으며 관광성향과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⁴⁰⁾.

이와같은 제주도 관광객의 성향변화는 1983년 특정지역 제주도 종합개발 계획안에 의한 관광개발계획에서 제주도관광객의 관광위락활동을 전망한 내

39) 제주도 전체 관광숙박업의 63.4%가 제주시예, 34.1%는 서귀포시에 분포함.

40) 한국관광개발연구원(1994). p. 444.

용과도 유사하다. 당시 과거의 자료가 전무한 상태에서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이며 제주도 외국인관광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장래에도 같은 현상이 예측되는 일본과 미국의 레크레이션활동 및 관광활동에 관한 자료를 분석하여 장차 변화가 예상되는 제주도 관광변화를 예측하였다. 이에 의하면 외국인들의 자연관광지감상은 대체적으로 15%이하로 나타나는 반면에 산책, 하이킹, 피크닉, 등산 등이 17.3%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특정한 스포츠활동에 치우치지 않고 모든 스포츠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유흥과 쇼핑활동이 20-30%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제주도의 관광위락활동도 단순한 경관감상위주의 위락행태에서 유흥 및 스포츠중심의 위락행태로 전환될 것이며, 재방문기회가 증가함에 따라 관광지순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 오래 머물면서 그곳에 설치된 각종시설을 이용하는 관광으로 변모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표 6> 참고

다만 현재 관광성향과 다른 점은 첫째, 박물관과 민속촌 관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1994년 현재 박물관과 민속촌의 관광수요가 점차 줄고 있으며 관광객수의 증가율도 낮아지는 추세이다. 박물관의 관광수요가 줄고 있는 이유는 제주도의 박물관이 문화유산과 작품을 단순하고 평면적으로 전시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의 흥미를 끌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민속촌 관람이 급격히 줄어든 이유는 성읍민속마을의 경우 단순히 민속마을의 현장보전과 상품판매에만 치우치고 있기 때문에 현장감과 생동감이 부족하며, 제주민속촌의 경우 민속촌운영자의 사업경영악화로 인하여 민속촌 관련 종사자들의 수가 기존의 절반이하로 줄면서 관리소홀과 무형문화재의 재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등산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 점이다. 제주도에서의 등산활동은 대부분

<표 6> 내국인관광객 장래 관광위락활동 전망⁴¹⁾

(단위 : %)

관광위락활동	1986년		1991년		2001년	
	참여율	구성비	참여율	구성비	참여율	구성비
자연관광지감상	75.5	21.4	70.7	20.2	67.1	19.9
민속촌방문	42.3	12.0	49.4	14.1	49.6	14.7
수영 · 해수욕	22.6	6.4	20.4	5.8	17.4	5.1
드라이브	22.0	6.2	22.1	6.3	22.3	6.6
관람	19.4	5.5	20.7	5.9	22.4	6.7
해양위락활동	9.0	2.5	9.2	2.6	9.4	2.8
문화재감상	6.4	1.8	4.8	1.4	3.7	1.1
등산	5.7	1.6	4.3	1.3	2.3	0.7
골프	1.6	0.5	2.1	0.6	3.0	0.9
도시관광 · 쇼핑	47.4	13.4	48.1	13.8	48.6	14.4
농원 · 목장방문	42.4	12.0	38.9	11.1	33.2	9.8

자료: 제주도(1985), 「특정지역제주도종합개발계획」 제1권 「관광개발계획

라산 등산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실제 한라산 등산인구는 1986년 176,184명(전체 관광객의 11.8%)에서 1991년 386,000명(전체 관광객의 12.0%)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한라산 등산을 목적으로 제주도를 방문하는 내국인관광객 수는 1986년 96,172명, 1991년 241,001명, 1995년 349,335명으로 10년간 연평균 15.1%씩 증가하였다. 셋째, 농원 및 목장방문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 점이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농원과 목장의 관광자원이용형태가 단순히 농

41) (1) 관람에는 민속박물관, 도립박물관(삼성혈이 포함), 해양박물관, 식물원, 수족관이 포함된다.

(2) 해양위락활동에는 해저관광, 보트타기, 요트타기, 수상스키, 스쿠버다이빙이 포함된다.

원과 목장의 방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관광객의 체류를 목적으로 숙박 시설과 각종 오락시설을 함께 유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용자의 수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1994년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의한 관광지의 시설내용에도 대부분 관광농원과 관광목장의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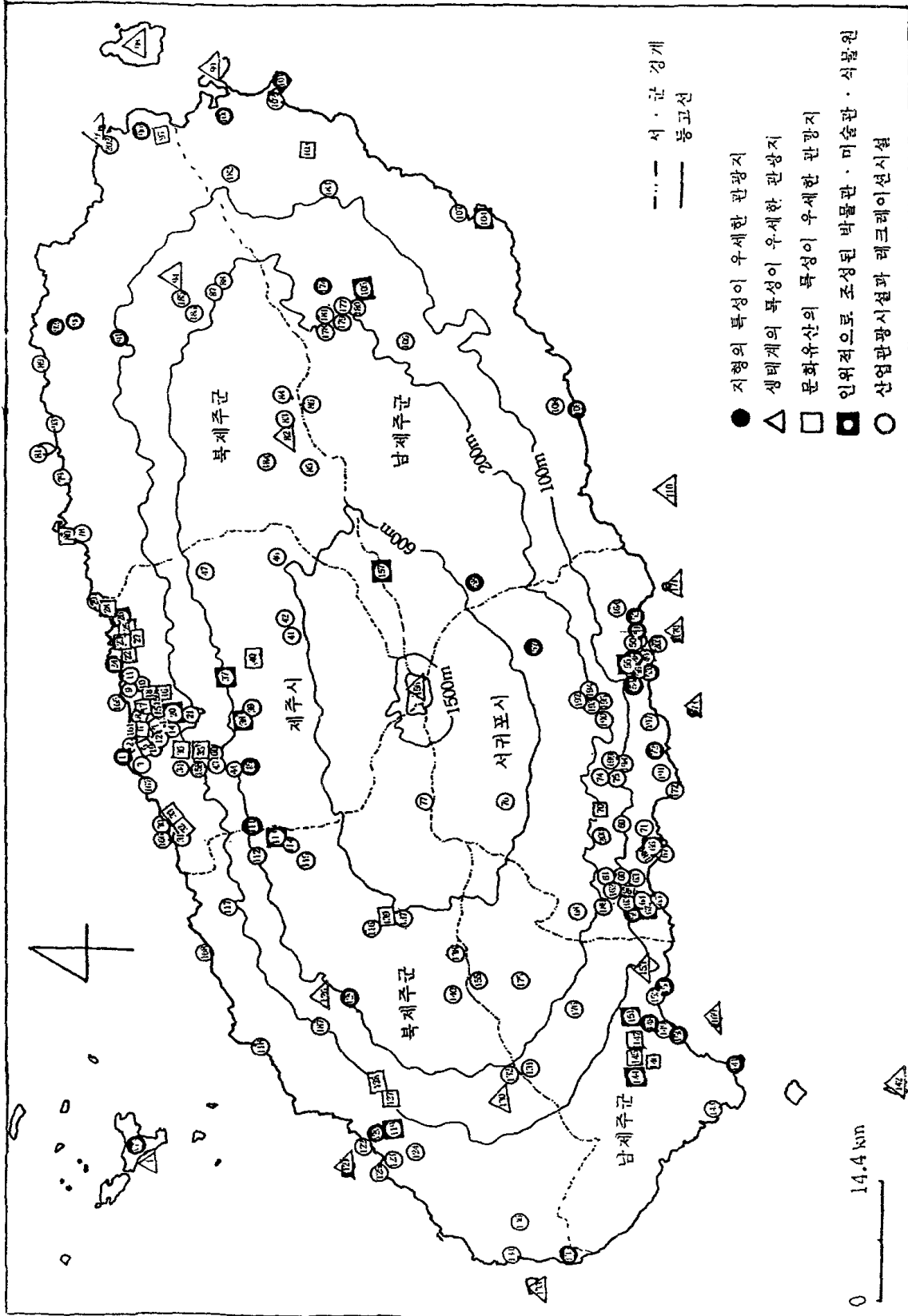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주도 관광객의 관광성향은 자연관광지와 문화재의 감상 또는 유람의 관광형태에서부터 등산, 골프 등 스포츠와 관광목장, 체험어장 등 다양한 오락시설을 이용하는 활동적인 관광형태로 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의 증대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다양하고 고급화된 오락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서구식 가치관의 변화로 활동지향적인 관광형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IV. 제주도 관광자원의 공간적 분포

A. 제주도의 관광자원

본 연구에서는 현재 관광자원으로 활용되는 203개 관광지(1996년 개관 예정인 개발지역을 일부 포함)를 선정하여 제주도의 관광자원의 현황과 그 특색을 살펴 보았다. <그림 1>참고

관광자원은 관광객의 관광욕구를 유발시키는 주요 관광대상으로서 생성 원인에 의하여 문화적 자원과 자연적 자원으로 분류하였다. 문화적 자원은 다시 문화유산, 산업관광시설, 레크레이션시설로 분류하였다. 문화유산은 유형·무형 문화재를 포함한다. 유형문화재는 국보·보물·사적·지방문화재, 고적, 가옥, 사찰, 묘지, 민속유물, 역사적 유래가 있는 유형의 문화유산을 의미한다. 무형문화재는 설화, 민요, 무속신앙, 세시풍속 및 민속놀이, 음식, 공예기술, 무용 등을 포함한다. 유·무형문화재를 문화유산에 함께 포함시킨 이유는 제주도의 관광자원으로 활용되는 무형문화재가 소수로서 무형문화재를 따로 구분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산업관광시설은 산업시설을 관광자원화 한 것으로서 농원, 목장, 선착장, 쇼핑시설, 공연장, 해녀작업장, 미술관, 박물관, 인위적으로 조성한 식물원, 정원 등을 의미한다. 레크레이션시설은 스포츠 및 오락활동과 관련된 인위적으로 조성된 관광시설로서 수영장, 사격장, 수렵장, 골프장, 운동시설, 놀이시설, 낚시터, 해수욕장, 승마장 등이 포함된다. 다음으로 자연적 자원은 지형과 생태계로 분류하였다. 지형은 해안지형과 내륙화산지형으로 분류하였다. 제주도가 관광지로 발달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은 화산활동에 의해 형성된 한라산과 기



<그림 1> 연구지역의 관광자원 분포

번호	관광지명	번호	관광지명	번호	관광지명
1	용두암	39	오라컨트리클럽	77	1100휴게소
2	용연	40	산천단	78	만세동산
3	레포츠공원	41	제주컨트리클럽	79	함덕해수욕장
4	관탈섬	42	왕벚나무자생지	80	연북정
5	제주향교	43	한라수목원	81	북촌다려도
6	관덕정	44	신비의 도로	82	산굼부리
7	향사당	45	제주도축산진흥원	83	교래농어촌휴양단지
8	해변공연장	46	제주절물자연휴양림	84	명진리조트
9	사라봉	47	명도암관광휴양목장	85	경주마육성목장
10	모충사	48	천지연폭포	86	제주비행훈련원
11	칠머리당굿전승지	49	서귀포충패류화석	87	제주온천리조트
12	제주도민속자연사 박물관	50	서귀포항	88	세화송당온천지구
13	신산공원	51	정방폭포	89	김녕해수욕장
14	문예회관	52	소정방폭포	90	김녕사굴
15	제주관광민속관	53	외돌개	91	만장굴
16	삼성혈	54	삼매봉	92	월정리종유굴
17	오현단	55	기당미술관	93	동북리관광체험어장
18	제주읍성	56	서귀포문예회관	94	비자림
19	벚꽃거리	57	돈내코국민관광지	95	문주란자생지
20	제주교육박물관	58	수악계곡	96	하도리철새도래지
21	제주시종합경기장	59	천제연폭포	97	별방성지
22	화북비석거리	60	선임교	98	우도
23	해신사	61	천제루	99	성산일출봉
24	별도봉	62	제주관광식물원	100	식산봉
25	화북진성	63	관광단지입구소공원	101	섭지코지
26	제주민속박물관	64	제주관광수족관	102	신양해수욕장
27	삼사석	65	중문해수욕장	103	혼인지
28	원당사지5층석탑	66	중문민속박물관	104	제주민속촌
29	삼양해수욕장	67	대포동주상절리	105	성읍민속마을
30	이호해수욕장	68	대유랜드	106	대한항공미래항공관
31	월대	69	중문오렌지파크	107	표선해수욕장
32	방사탑	70	범화사지	108	영화박물관
33	연대	71	약천사	109	남원큰영
34	삼무공원	72	강정천	110	지귀도
35	조설대	73	범섬	111	무수천
36	고인돌	74	도순다원	112	항몽유적지
37	탐라목석원	75	녹나무자생지	113	신천지미술관
38	방선문	76	서귀포자연휴양림	114	지암요

번호	관광지명	번호	관광지명	번호	관광지명
115	제주경마장	153	안덕계곡	191	삼성농원
116	한라파크승마장	154	월라봉박수기정바위	192	제주농원
117	수산유원지	155	파라다이스골프클럽	193	내성농원
118	곽지해수욕장	156	백록담	194	서귀포농원
119	한림공원	157	한라산등산로	195	길농원
120	협재굴	158	제주그랜드카지노	196	서림농원
120	비양도	159	제주칼카지노	197	비바리농원
122	협재해수욕장	160	제주남서울카지노	198	하르방농원
123	돌하르방직판매장	161	오리엔탈카지노	199	도순바나나
124	북제주군제주청소 년수련원	162	하얏트카지노	200	오렌지난원
125	선인장자생지	163	신라카지노	201	마라도농원
126	납읍금산공원	164	서귀포칼카지노	202	하도리관광체험어장
127	명월대	165	제주항서방파제	203	새섬
128	명월성지	166	내도동해변		
129	어음리빌레못굴	167	도두동해변		
130	분재예술원	168	중엄리해변		
131	서광관광휴양목장	169	형제도		
132	서광다원	170	문도		
133	차귀도	171	삼도		
134	절부암	172	강정동해변		
135	수월봉	173	추자도		
136	용수리철새도래지	174	영주산		
137	납읍관광휴양목장	175	한라승마장		
138	산지별꽃가공공장	176	서광승마장		
139	원동마을터	177	성읍승마장		
140	이시돌목장	178	정의승마장		
141	송악산	179	바우승마장		
142	마라도	180	알프스승마장		
143	하모해수욕장	181	동부승마장		
144	추사적거지	182	이어도승마장		
145	대정성지	183	명예승마장		
146	대정향교	184	탐라승마장		
147	덕수리불미공예	185	송당승마장		
148	산방산	186	명산승마장		
149	하멜표류기념비	187	그린승마타운		
150	용머리해안	188	에덴승마장		
151	제주조각공원	189	초원승마장		
152	화순해수욕장	190	15번지농원		

생화산, 계곡, 폭포, 용암굴과 같은 지형적 특색 때문이다. 이와같은 지형적 특색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관광지의 위치와 침식유형에 따라 지형을 해안지형과 내륙화산지형으로 세분하였다. 해안지형은 현재 해안에 인접해 있어서 끊임없는 해식작용을 받고 있는 지역으로서 정방폭포, 용두암, 성산일출봉 등이 속한다. 내륙화산지형은 해안에서 떨어져 위치한 산굼부리, 만장굴, 안덕계곡, 백록담 등이 속한다. 생태계는 식생, 식물군락, 동물상 등을 의미한다. 비자림, 녹나무 자생지, 남읍금산공원 등이 속한다. <부록 1> 참고

B. 제주도 관광자원의 공간적 분포

대부분 관광자원들은 지표상에서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한 지역내에서도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나타난다. 이와같이 다차원적으로 나타나는 관광자원을 보다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보전하고 개발하기 위하여 관광요인의 공간분포상 특색과 그 질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관광자원의 공간분포를 밝히는 일은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밝힘으로써 관광자원의 개발뿐만 아니라 관광객의 관광동기 충족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지역내의 관광산업의 개발에도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관광요인의 공간적 분포를 밝히기 위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군집분석은 다수의 대상들을 몇 개의 동질적인 군집으로 구분함으로써 동일군집내에 속해있는 공통된 특성들을 조사하는 경우에 주로 사용한다⁴²⁾. 따라서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는 관광요인의 공간상 특색과 유사성을 밝히기에 가장 적절한 조사방법으로 사료된다. 군집분석의 자료는 관광

42) 김충련(1994). 「SAS라는 통계상자」 (서울 : 데이타리서치), p. 463.

객이 제주도 주요 관광지에서 관람하거나 즐길수 있는 관광요소를 관광자원의 유형별로 수치화하여 이용하였다. 용두암을 예로 들면 무형문화유산으로는 용두암 전설이 전해지고 있으며 해안지형의 특색으로는 하효리현무암괴, 유상구조, 파식대, 조면암과 현무암의 단애 등을 관찰할 수 있고 바위 표면에 섬갯분취, 뉘시돌풀 등이 자생하고 있다. 즉 용두암에서 관광객들은 1개의 전설, 4종류의 해안지형의 특색, 2종의 식생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따라서 용두암의 관광자원은 문화유산 1, 해안지형 4, 동식물상 2로 수치화하여 분석하였다. <부록 2> 참고

군집분석 결과 제주도의 관광지는 5개의 대군집으로 분류된다. 대군집의 명칭은 관광요인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형, 식물상, 문화유산, 문화관광시설, 위락시설로 정하였다. 이 대군집들은 관광자원의 특성에 따라 9개의 소군집으로 세분하였다. 각 군집의 특성은 <표 7>과 같다.

<표 7> 군집별 관광지 특성

관광자원 유형에 따른 대군집명	소군집 명	특성
지형	군집 1	해안지형의 특성이 우세한 지역군
	군집 5	내륙화산지형의 특성이 우세한 지역군
식물상	군집 8	생태계의 특성이 우세한 지역군
문화유산	군집 3	문화유산의 특성이 있으나 빈도가 낮고, 다른 요인이 첨가된 지역군
	군집 6	군집 3 지역에 비하여 문화유산의 규모와 빈도가 높고 다른 요인은 없는 지역군
문화관광 시설	군집 1	민속유물박물관의 특성을 지닌 지역군
	군집 2	야외미술관의 특성을 지닌 지역군
	군집 3	인공식물원의 특성을 지닌 지역군
위락시설	군집 2	문화유산, 산업관광시설, 레크레이션시설의 특성이 나타나나 그 빈도가 낮고 규모가 적은 지역군
	군집 4	군집 2 지역에 비하여 레크레이션시설의 규모가 크고 빈도가 높은 지역군
	군집 7	산업관광시설과 레크레이션시설의 규모가 크고 빈도가 높은 지역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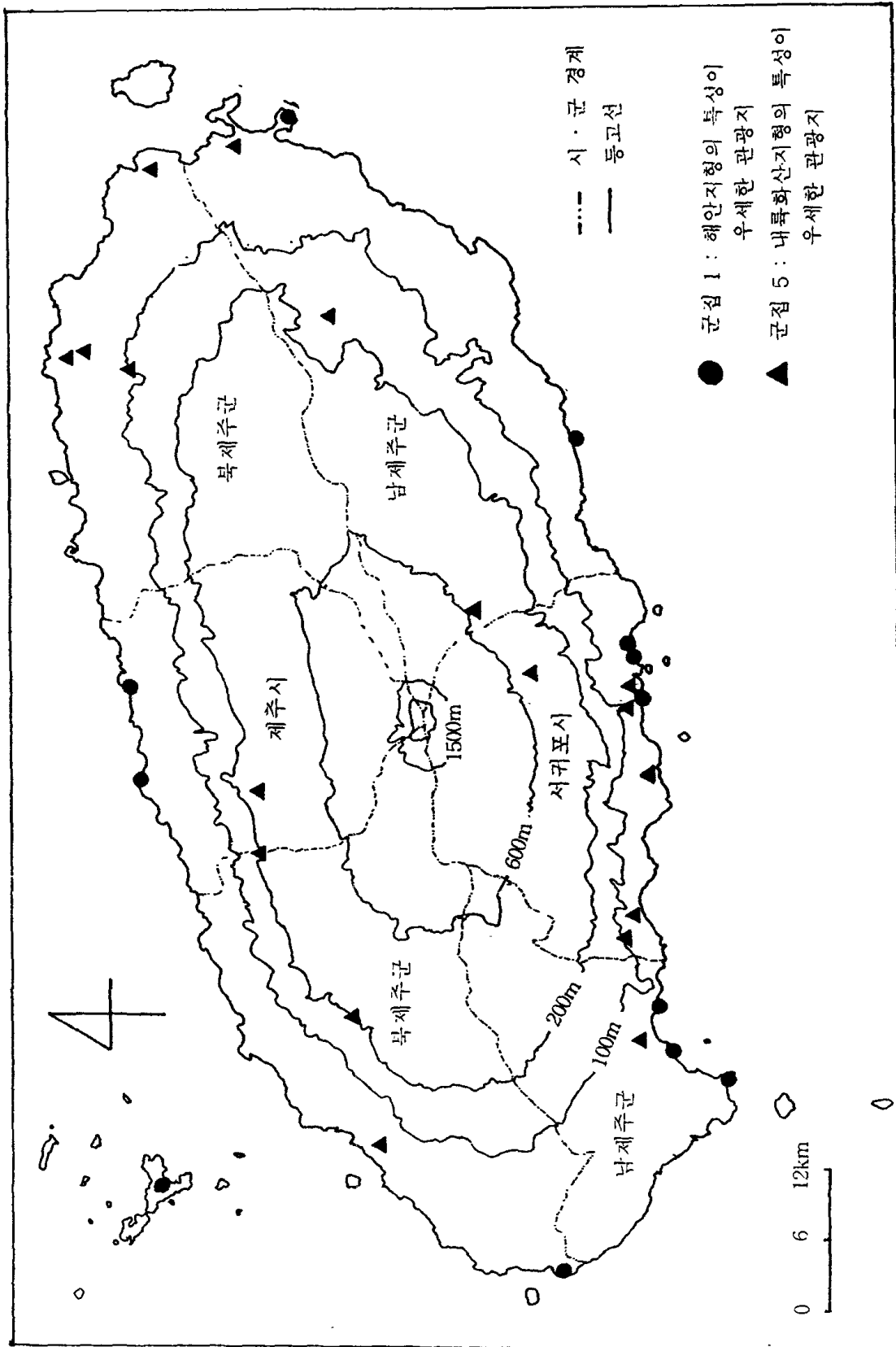
1. 대군집 <지형>

대군집 <지형>은 자연적 관광자원중에서 지형적 특성이 우세한 지역들이다. 군집 1과 군집 5지역이 속한다.

군집 1지역은 해안지형의 특성이 우세한 지역으로서 일부지역은 한 두개의 다른 자원이 함께 나타나고 있으나 그 빈도수는 1-4정도로서 낮은 편이다. 용두암, 외돌개, 섬지코지, 남원 큰엉 등의 파식대 및 해안침식지형과 수월봉, 별도봉, 송악산, 용머리해안 등 해안에 위치한 기생화산 그리고 해안침식작용을 많이 받고 있는 폭포가 이 군집에 속한다. 추자도는 섬으로 구성되어 있는 군집 8에 속하지 않고 군집 1지역에 포함되어 있다. 이는 생태계의 빈도수가 3으로서 군집 8에 속한 다른 섬들에 비하여 그 수치가 현저하게 낮기 때문이다.

군집 5지역은 내륙화산지형의 특성이 우세한 지역이다. 내륙화산지형의 특성만 나타나는 지역은 없고 문화유산, 산업관광시설, 레크레이션시설, 생태계의 특성을 1개 또는 3개까지 다양하게 포함하고 있다. 또한 대군집 <문화유산>과 <위락시설>에 속하는 생태계의 빈도수와 비교할때 비교적 그 수치가 높은 편이다. 내륙에 위치한 기생화산과 폭포, 하천, 계곡 및 용암굴이 이 군집에 속한다. 예외적으로 내륙화산지형과는 관련이 적은 제주도축산진흥원, 하도리철새도래지, 제주관광수족관이 군집 5에 포함되어 있다. 이 지역들은 산업관광시설과 생태계 또는 산업관광시설과 레크레이션시설, 생태계의 요인이 함께 나타나는 지역으로서 군집 2지역에 포함되는 것이 적절하게 보이나 군집 2지역에 비하여 생태계의 빈도수가 5이상으로 높기 때문에 다양한 특색이 나타내는 군집 5지역에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대군집<지형>의 공간적 분포는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군집별로 다르게 분포한다. 즉 군집 1은 해안지형으로서 해식작용이 활발한 서귀포시를 중심으로 고도 100m이내의 제주도 남해안에 주로 분포하고 있다. 군집 5는 내륙화산지형으로서 기생화산과 폭포가 위치한 고도 100m이하의 제주도 남해안지역과 동부지역, 그리고 기생화산과 용암굴이 위치한 고도 600-1500m의 한라산 중산간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그림 2>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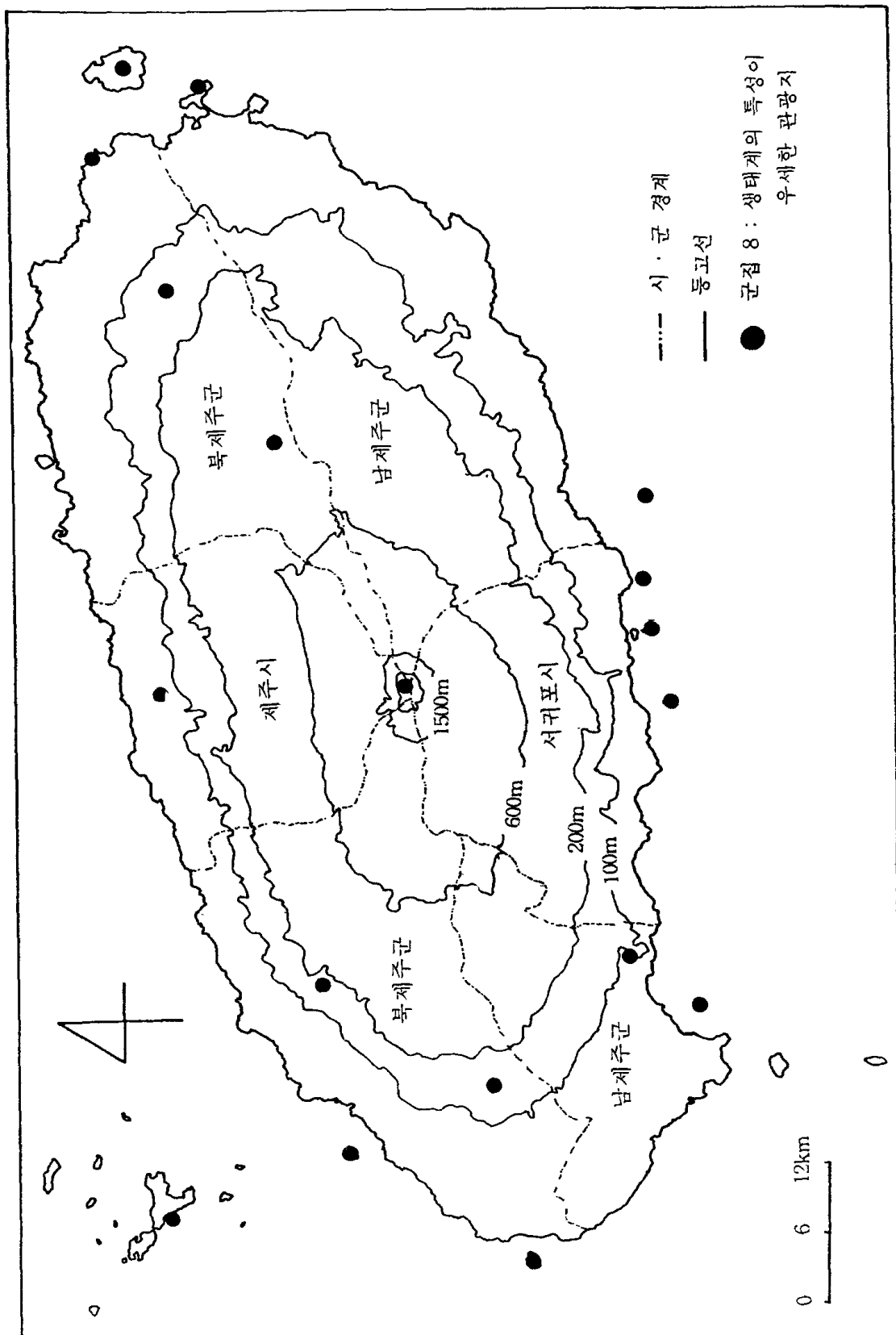


<그림 2> 대군집 <지형>의 특성이 나타나는 지역

2. 대군집 <식물상>

대군집 <식물상>은 자연적 관광자원중에서 생태계의 특성이 우세한 지역이다. 이 지역은 대부분 해안지형 또는 내륙화산지형의 특성이 함께 나타난다. 특히 생태계의 빈도수가 타 군집에 비하여 매우 높게 나타나는데 가장 낮은 지역은 47, 높은 지역은 420까지 나타난다. 관탈섬, 문주란자생지(난도), 형제도, 지귀도는 생태계의 빈도수가 40-100이하이며 범섬, 차귀도, 마라도, 삼도, 우도, 비양도, 문도는 생태계의 빈도수가 140-420까지 다양하고 높은 편이다. 이 지역들은 모두 해안지형의 특성을 함께 지니고 있다. 내륙화산지형이 우세한 지역은 백록담, 안덕계곡, 산굼부리가 해당된다. 산업관광시설의 특성이 나타나는 지역은 남읍금산공원과 분재예술원이고, 레크레이션시설이 우세한 지역은 비자림이다. 특이한 것은 제주도의 대표적인 사적지인 삼성혈이 이 군집에 속하여 있는 것이다. 삼성혈은 문화유산의 요인이 우세한 지역이나 생태계의 빈도수가 54로서 그 특성이 이 군집의 다른 지역과 유사하여 포함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분재예술원은 생태계의 빈도수가 140으로서 이 군집에 속하였으나, 인위적으로 조성된 식물원이기 때문에 대군집 <문화관광시설>의 군집 3지역에 포함되는 것이 적당할 것이다.

이 군집의 공간적 분포를 살펴보면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주도 주변에 위치한 섬, 특히 남해안의 섬들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다. 제주도 남해안지역을 제외하면 제주도 전역에 분산되어 있는 편이다. 고도별 분포를 보면 백록담과 산굼부리를 제외하고 고도 200m이내에 분포하고 있다. <그림 3>참고



<그림 3> 대군집 <식물상>의 특성이 나타나는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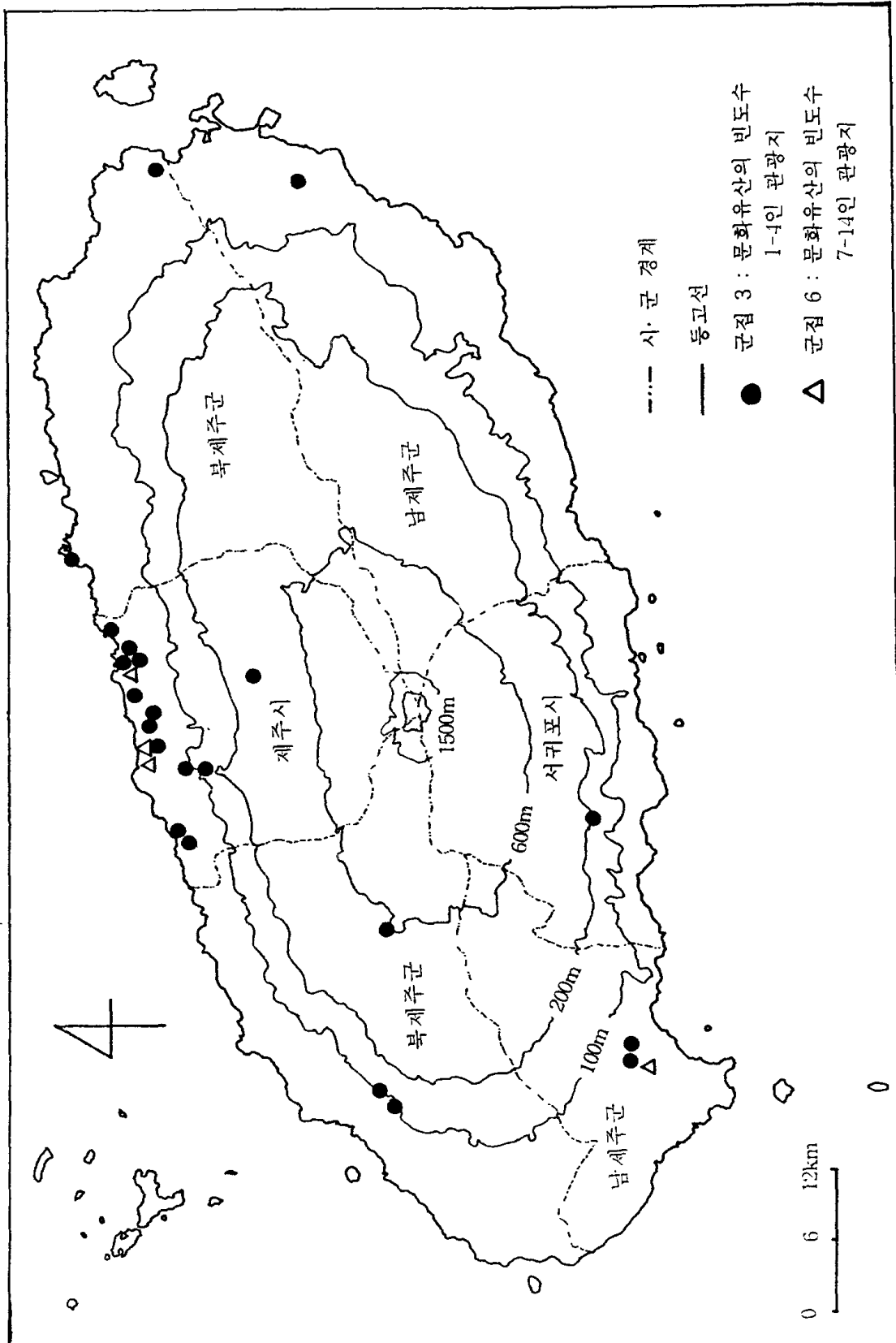
3. 대군집 <문화유산>

대군집 <문화유산>은 문화적 관광자원중에서 문화유산이 풍부한 지역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 군집에는 소군집 3지역과 6지역이 속한다.

군집 3지역은 문화유산의 빈도가 1-4정도의 낮은 수치를 나타내며, 일부 지역은 생태계의 특성을 함께 보유하고 있기도 하다.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대부분의 문화유적지들이 이에 속한다.

군집 6지역은 문화유산의 빈도가 7-14정도로서 군집 4지역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는 지역들이다. 제주향교, 대정향교, 관덕정, 화북비석거리가 이에 속한다.

이 군집에 속하는 관광지들의 공간 분포를 살펴보면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주시를 중심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제주시가 고려시대 이후 지금까지 행정중심지의 역할을 함으로써 도처에 많은 문화유산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고도별 분포를 보면 대부분의 지역은 고도 100m이하의 해안저지대에 분포하고 있다. 다만 범화사지, 방사탑, 명월대와 명월성지는 고도 200m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산천단과 원동마을터는 고도 600m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예로부터 제주도민의 생활이 해안저지대에서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그림 4>참고



<그림 4> 대군립 <문화유산>의 특성이 나타나는 지역

4. 대군집 <문화관광시설>

대군집 <문화관광시설>은 박물관, 미술관, 식물원 등으로써 관광객의 관광동기를 유발시키고 관광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조성한 지역이다. <문화관광시설>은 그 관광자원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크게 3군집으로 세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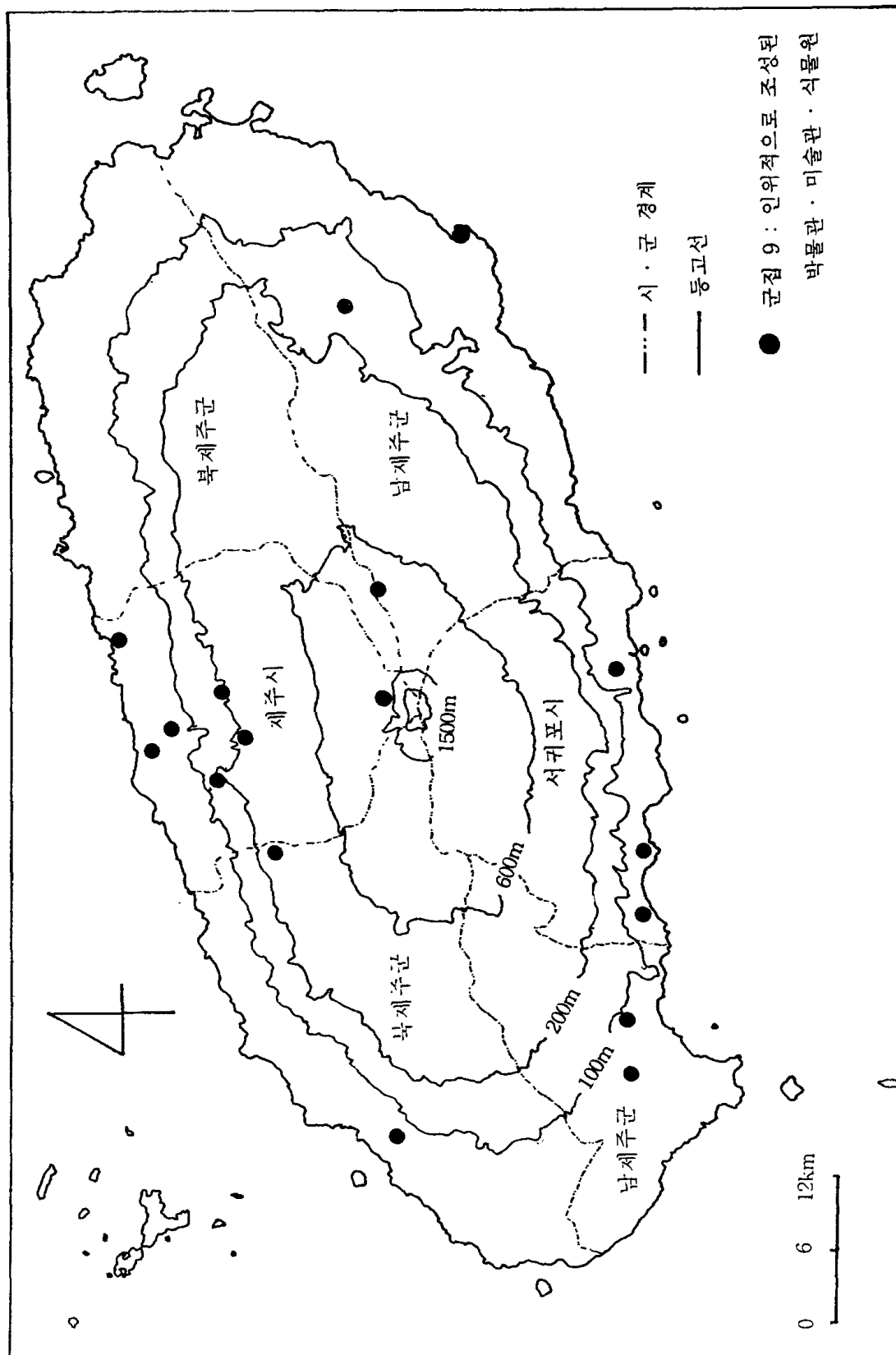
군집 1은 문화유산의 빈도와 규모가 큰 지역으로서 그 크기에 따라 방선문과 추사적거지, 성읍민속마을, 제주민속박물관과 중문민속박물관,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과 제주교육박물관 및 제주민속촌의 4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문화유산의 빈도가 타 군집에 비하여 높은 수치를 나타낸다. 이는 제주도내에 산재되어 있었던 민속유물들을 박물관에 모아 놓은 지역이기 때문이다. 박물관은 관광자원의 분류에 있어서 산업관광시설에 속하나 그 내용물에 있어서 최근에 형성된 것이 아니고 고고민속유물인 관계로 문화유산의 특성에 포함시켰다.

군집 2는 산업관광시설의 빈도가 높은 지역으로서 그 수치에 따라 3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 1지역은 제주조각공원, 2지역은 기당미술관과 신천지미술관, 3지역은 탐라목석원이다. 조각공원과 미술관은 회화, 조각, 판화, 공예, 서예작품들은 야외 또는 실내 전시관에 전시해 놓은 지역이며, 탐라목석원은 한라산에서 형성된 조록나무뿌리와 돌을 이용하여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것들이다. 이 3지역은 모두 인공적으로 조성된 미술관과 전시관의 특색을 지니고 있다.

군집 3은 생태계의 빈도수가 높은 지역이다. 한라수목원, 한림공원, 한라산등산로, 제주관광식물원이 이 군집에 속한다. 한라수목원, 한림공원, 제주

관광식물원은 제주도에서 자생하는 식생과 본토에서 접하기 어려운 열대·아열대식물들을 이용하여 인위적으로 식물원을 조성한 지역이기 때문에 생태계의 빈도치가 높다. 예외적으로 한라산등산로가 이 군집에 포함되어 있다. 한라산등산로의 관광요인 분석은 4개의 주요 등산로인 성판악코스, 영실코스, 어리목코스, 관음사코스를 모두 포함시켰다. 한라산등산로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생태계의 특성이 우세하기 때문에 대군집 <식물상>에 속하거나, 등산활동이 스포츠·레크레이션시설과 관계되기 때문에 대군집 <위락시설>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대군집<문화관광시설>의 공간적 분포를 살펴보면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3분의 1이상이 제주시를 중심으로 밀집되어 있으며 고도 100m이내의 남서부지역에도 많이 분포한다. 제주시에 문화관광시설이 밀집된 이유는 제주시가 행정중심지로서 경제·문화의 중심지이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고도별 분포를 보면 관광지의 60%정도가 100m이하에 분포하고 있으며, 나머지도 600m이내에 주로 분포하고 있다. <그림 5>참고



<그림 5> 대군립 <문화관광시설>의 특성이 나타나는 지역

5. 대군집 <위락시설>

대군집 <위락시설>은 문화적 관광자원중에서 인위적 위락시설인 산업관광시설과 레크레이션시설의 특성이 두드러지는 지역들로서 다양한 특성을 보인다. 군집 2, 군집 4, 군집 7지역이 포함된다.

군집 2지역은 산업관광시설과 레크레이션시설의 기능이 우세하나 그 규모가 작고 빈도가 낮은 지역들로서 빈도수는 1-4정도이다. 또한 2-5정도의 빈도를 가진 생태계의 특성이 함께 나타난다. 일부 지역은 문화유산, 내륙화산지형의 요인을 함께 보유하고 있기도 하다. 관광요인의 빈도는 각각 1-4 정도로서 낮은 편이다. 낚시터와 승마장, 관광목장, 관광농원, 관광어장, 관광호텔, 온천, 특산물판매장 등이 이 군집에 속하며, 왕벚나무자생지, 도순다원, 녹나무자생지, 선인장자생지가 포함된다. 예외적으로 문화유산을 간직한 월대와 절부암이 이 군집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생태계의 빈도수가 4로서 다른 지역들과 특성이 유사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또한 내륙화산지형인 사라봉과 사당인 모충사, 역사유적지인 만세동산 등이 이 군집에 포함되어 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사라봉은 내륙화산지형에 속하지만 제주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서 필요한 시설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이며, 모충사와 만세동산에는 기념탑이 설치되어 있어서 산업관광시설의 요인이 더 우세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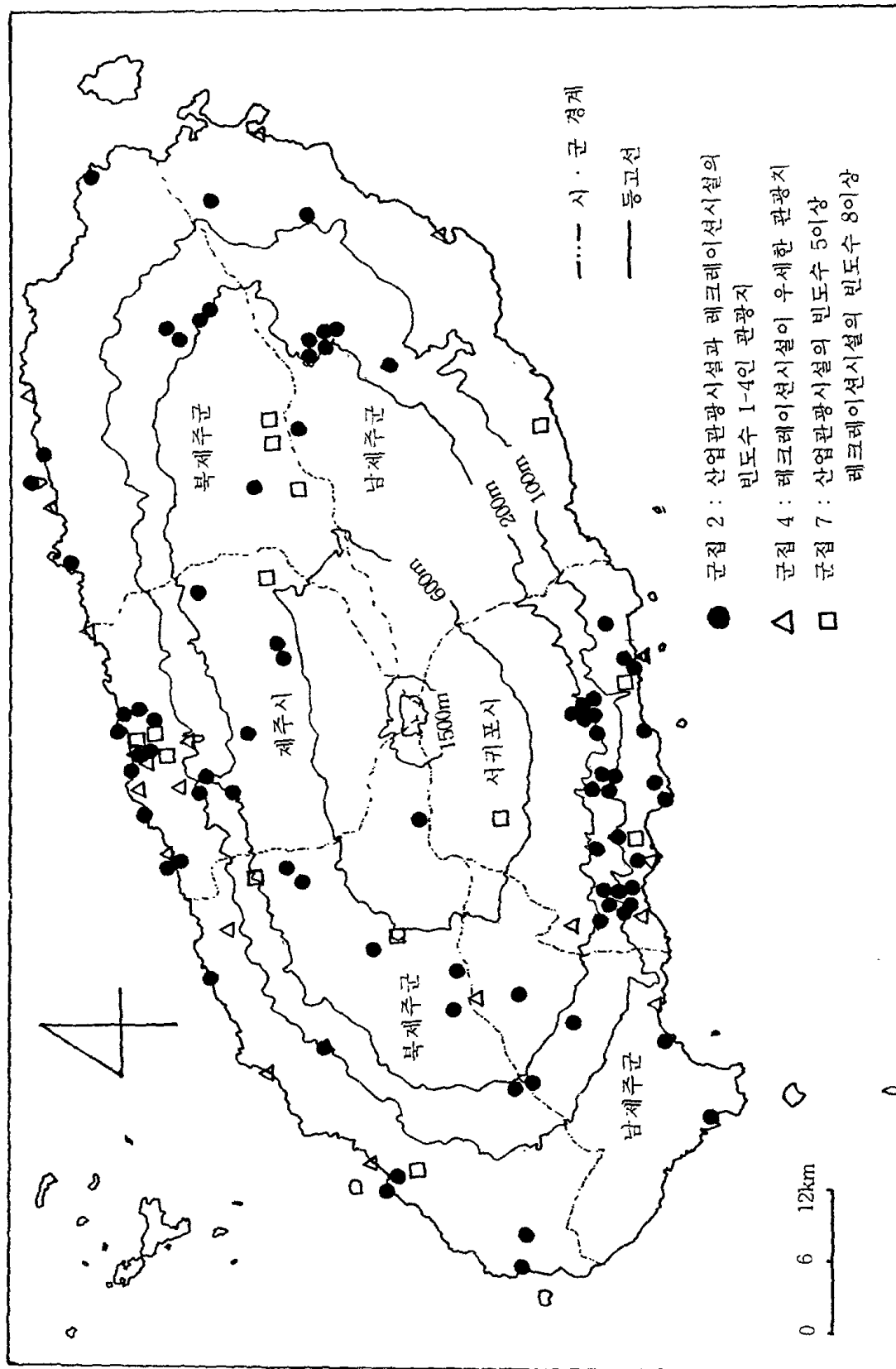
군집 4지역은 레크레이션시설이 우세한 지역으로서 산업관광시설, 해안지형, 동식물상의 특성이 함께 나타나기도 한다. 레크레이션시설의 빈도는 1-6까지 나타나며 그 외 요인들은 1-2정도의 낮은 빈도수를 나타낸다. 수렵장, 골프장, 해수욕장 등이 이 군집에 속한다. 레포츠공원과 삼무공원은 주

요 시설물이 스포츠와 레저활동을 위한 것들이기 때문에 군집 4에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해안지형의 특성이 우세한 대포동주상절리와 새섬이 군집 4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해안지형 및 레크레이션시설과 생태계의 특성이 해수욕장들과 유사하기 때문에 동일 군집으로 분류된 것으로 추정된다.

군집 7지역은 산업관광시설과 레크레이션시설의 규모가 크고 그 빈도수가 높은 지역들이다. 빈도수 5이상의 산업관광시설만 가지고 있거나, 레크레이션시설의 빈도수가 8이상으로서 산업관광시설 및 내륙화산지형, 동식물상의 특성이 함께 나타나기도 한다. 해변공연장, 문예회관, 청소년수련원, 영화박물관, 제주관광민속관, 휴양림 등이 이 군집에 속한다. 예외적으로 향파두리 향몽유적지가 이 군집에 포함되어 있다. 향몽유적지의 관광요인을 살펴보면 문화유산이 7, 산업관광시설이 7로서 산업관광시설의 빈도수가 5이상이기 때문에 군집 7지역에 함께 포함된 것으로 사료된다.

대군집<위락시설>의 공간적 분포는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중심으로 제주도 전 지역에 고루 분산되어 있다. 이는 문화유산, 지형, 식물상이 두드러지는 기존의 관광지들을 거점으로하여 위락시설들을 확충 또는 신설하였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고도별 분포를 보면 대부분 100m이내에 분포하고 있으나 다른 군집들과는 달리 고도 200-600m에 분포하는 지역이 많은 편이다. 이는 최근 고도 200-600m의 중산간지역을 관광자원화하기 위하여⁴³⁾ 관광목장과 휴양림, 관광승마장 등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6>참고

43) 진남근(1991). “ 제주지역 관광지 개발에 관한 연구(중산간지대의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그림 6> 대군집 <위락시설>의 특성이 나타나는 지역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광객의 관광동기를 유발시키고 관광욕구를 충족시키는 관광자원이 제주도 전역에 걸쳐 분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연적 관광자원중에서 지형적 요인이 뚜렷한 관광지를 보면, 해안지형은 해식작용이 활발한 서귀포시와 제주도 남해안지역에 주로 분포하며, 내륙화산지형은 기생화산과 용암굴이 산재되어 있는 한라산 중산간지역에 분포한다. 식물상이 두드러지는 지역은 제주도 남해안의 무인도를 중심으로 제주도 전역에 분산되어 있으며 고도 200m이하에 분포하고 있다. 문화적 관광자원중에서 문화유산은 고려시대 이후 행정중심지역할을 담당한 제주시를 중심으로 고도 100m 이내에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관광객을 일정기간 체류시키는 역할을 하는 산업관광시설과 레크레이션시설 등 위락시설은 한라산 고산지대를 제외한 제주도 전역에 걸쳐 고루 분포하고 있으며 다른 관광자원과는 달리 고도 200-600m의 중산간지역에도 많이 분포하고 있다. 문화관광시설은 제주도의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인 제주시를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다. 위락시설과 문화관광시설은 1980년 중반이후 다양한 성향의 관광객을 유인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형성한 관광자원이다. 이 위락시설과 문화관광시설은 1980년대 초반까지 개발한 지형 및 식물상이 두드러지는 관광지와 숙박시설이 밀집한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거점으로하여 시설을 개발·확충하였다⁴⁴⁾. 따라서 이 시설들의 공간적 분포도 제주도 전역에 분산되는 경향이 있으며 지역별 특색이나 차별성이 거의 없다.

관광지의 관광자원들을 원칙적으로 계산하다 보면 관광객들이 주로 찾는

44) 문병희(1988). “체류형 관광지 개발-제주지역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1-104.

관광자원의 유형과는 다른 요인의 수치가 더 높게 나오므로써 엉뚱한 군집에 포함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일부 관광지의 주요한 관광자원에 가중치를 더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를 가공하기 위한 관광지 선정기준과 가중치를 더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 지정관광지와 유료화된 사설관광지들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둘째, 관광객들의 주요 관광동기가 되는 관광자원이 다른 관광자원보다 빈도수가 낮은 관광지를 대상으로 빈도수가 가장 높게 나오도록 자료를 가공하였다. 천지연폭포를 예를 들면, 관광자원이 문화유산 1, 산업관광시설 1, 레크레이션시설 2, 내륙화산지형 4, 생태계 7로서 생태계에서 식물상의 특성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실제로 가장 중요한 관광자원은 폭포의 경관이므로 내륙화산지형이 생태계의 수치보다 높게 나오도록 3배의 가중치를 더하였다. 이와같은 기준에 의하여 정방폭포는 해안지형을 7에서 14로, 소정방폭포는 해안지형을 6에서 12로, 천제연폭포는 해안지형을 4에서 8로, 대포동 주상절리는 해안지형을 2에서 6으로, 산굼부리는 내륙화산지형을 6에서 24로, 만장굴은 내륙화산지형을 7에서 14로, 성산일출봉은 해안지형을 10에서 30으로, 산방산은 내륙화산지형을 7에서 14로, 안덕계곡은 내륙화산지형을 5에서 10으로, 백록담은 내륙화산지형을 6에서 24로 각각 수치를 가공하였다. 이와같이 가중치를 더한 자료를 군집분석한 결과 5개의 대군집과 10개의 소군집으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군집별 공간분포가 가중치를 더하지 않고 분석한 결과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표 8>참고

<표 8> 군집별 관광지 특성 - 가중치를 더한 경우

관광요인 유형에 따 른 대군집 명	소군집 명	특성
지형	군집 1	해안지형의 특성이 우세한 지역군
	군집 8	내륙화산지형의 특성이 우세한 지역군
식물상	군집 9	생태계의 특성이 우세한 지역군
문화유산	군집 3	문화유산의 특성이 우세한 지역군
문화관광 시설	군집 1	민속유물박물관의 특성을 지닌 지역군
	군집 2	야외미술관의 특성을 지닌 지역군
	군집 3	인공식물원의 특성을 지닌 지역군
위락시설	군집 2	산업관광시설과 레크레이션시설과 문화유산, 지형, 생태계의 특성이 나타나 규모와 빈도가 낮은 지역 군
	군집 5	레크레이션시설의 특성이 우세한 지역군
	군집 6	산업관광시설의 특성이 우세한 지역군
	군집 7	산업관광시설과 레크레이션시설의 규모가 크고 빈도 가 높은 지역군

V. 결론

오늘날과 같은 대중관광시대에 있어서 관광대상으로서의 관광자원은 관광객의 관광욕구를 충족시켜줄 뿐만 아니라 현장교육의 대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관광자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이용을 위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이론연구와 전문적인 해석, 다양한 정보의 제공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관광지인 제주도지역을 중심으로 관광객의 관광성향추이를 간단히 살펴보았다. 또한 관광자원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관광자원의 공간적 분포특성을 밝힘으로써 제주도 관광자원개발과 관광산업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제주도 관광객의 관광성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1989년부터 1994년까지 관광지별 관광객수의 증감추이를 살펴보면, 관광자원의 유형별로 그 증감상태가 뚜렷이 구별된다. 먼저 문화유산을 찾는 관광객수는 감소현상이 뚜렷하다. 또한 지형 및 자연경관이 우수한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수는 다른 유형의 관광자원에 비하여 방문객수의 비율은 높은 편이나 평균 증가율이 5%이하로서 매년 관광객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비하여 산업관광시설, 스포츠·레크레이션시설 및 식물상의 특성을 지닌 관광자원을 이용하는 관광객수는 비록 숫자는 적으나 그 증가율이 무척 높게 나타난다. 이와 같은 점으로 미루어 보아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의 관광성향이 문화유산이나 자연경관을 관람하는 정적인 형태의 관광으로부터 인위적으로 조성한 산업관광시설이나 스포츠·레저시설을 이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국민소득의 증대와 서구식 가치관의 변화 때문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같은 관광자원 유형에서도 관광지에 따라 관광객수의 증가율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동일한 관광자원의 유형인 경우 접근도의 정도에 따라 내륙보다는 해안지역에, 단일 관광자원만 있는 지역보다는 주변에 다양한 관광시설이 있는 지역에, 주요 숙박시설이 밀집해 있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인접한 지역에 관광객의 이용 증가율이 높게 나타난다.

다음으로 제주도의 203개 관광지를 선정하여 관광자원의 현황과 유형별 특색을 살펴 보았다. 또한 관광자원의 유형별 공간 분포를 밝히기 위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제주도의 관광지를 5개의 대군집과 9개의 소군집으로 분류하였다.

첫째, 대군집<지형>은 지형적 특성이 우세한 지역들이다. 소군집 1과 5지역이 속한다. 군집 1지역은 해안지형의 특성이 우세한 지역으로서 해식작용이 활발한 서귀포시를 중심으로 고도 100m이내 제주도 남해안에 주로 분포하고 있다. 군집 5지역은 내륙화산지형의 특성이 우세한 지역으로서 기생화산과 용암굴이 주로 위치하고 있는 고도 100-1500m내 한라산 중간지역과 계곡과 폭포가 많은 서귀포시를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다.

둘째, 대군집<식물상>은 생태계의 특성이 우세한 지역이다. 제주도 남해안의 무인도를 중심으로 분산되어 있으며 고도 200m이하에 대부분 분포하고 있다.

셋째, 대군집<문화유산>은 문화유산이 풍부한 지역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소군집 3지역과 6지역이 속한다.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문화유적지들과 제주향교, 대정향교, 관덕정, 화북비석거리가 이 군집에 속하며 제주시를 중심으로 고도 100m이내의 해안 저지대에 집중되어 있다.

넷째, 대군집<문화관광시설>은 대부분 박물관, 미술관, 식물원 등으로서

관광객의 관광동기를 유발시키고 관광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조성한 지역들이다. 공간적 분포를 살펴보면 3분의 1이상이 제주시를 중심으로 고도 100m이내에 밀집되어 있다.

다섯째, 대군집<위락시설>은 산업관광시설과 레크레이션시설의 특성이 두드러지는 지역들로서 다양한 특성을 보인다. 소군집 2, 4, 7지역이 포함된다. 소군집 2지역은 산업관광시설과 레크레이션시설의 규모가 작고 빈도가 낮은 지역들로서 낫시터, 승마장, 관광목장, 관광농원, 관광어장, 온천 등이 속한다. 군집 4지역은 레크레이션시설이 우세한 지역으로서 수렵장, 골프장, 해수욕장 등이 속한다. 군집 7지역은 산업관광시설과 레크레이션시설의 규모가 크고 그 빈도수가 높은 지역들이다. 공간적 분포를 살펴보면 특히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집중되면서 제주도 전역에 분산되어 있다. 문화관광시설과 위락시설이 제주도 전 지역에 분산된 이유는 1980년대에 개발한 지형 및 식물상이 두드러지는 관광지와 숙박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거점으로 시설들을 확장·신설하였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위락시설의 고도별 분포를 보면 100m이하의 해안지대와 200-600m의 중산간지대에 주로 분포하고 있다.

참고문헌

국내 논문

- 강상배(1971). “제주도 지형에 대한 소고-화산지형과 해안지형을 중심으로-”, 제주교대논문집 제1집, 제주교육대학.
- (1973). “제주도의 자원에 대한 연구”, 논문집 제3집, 제주교육대학.
- (1979). “제주도 남 북사면지형의 비교연구”, 논문집 9집, 제주교육대학.
- (1983). “애월읍의 종합개발에 관한 연구”, 논문집 제13집, 제주교육대학.
- 강승삼(1989). “제주도 지형, 지질연구의 과거 현재와 전망”, 지리학총 17호, 경희대학교.
- 고남욱(1975). “제주권역 지역개발의 방향설정에 관한 연구-토지이용계획을 중심으로-”, 논문집 제1집, 제주대 관광개발연구소.
- 고남욱 · 김태보(1990). “관광개발을 통한 지역사회의 개발전략-제주도 김령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지역발전연구 제2집, 제주대지역발전연구소.
- 고의장(1985). “제주도 자연경관의 관광지형학적인 분석적 연구”, 지역개발 논문집, 경희대학교.
- (1984). “제주도와 울릉도의 지형경관에 관한 비교연구”, 지리학연구 제9집, 한국지리교육학회.
- 권승애(1992). “중부 관광권에 관한 지리학적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용우 · 김선희(1994). “관광자원에 대한 지리적 연구동향”, 지리학 제29권

제2호, 대한지리학회.

김경택(1990). “제주지역 농공지구 실태와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아열대 농업연구 제7집, 제주대학교.

김두철(1990). “관광지 개발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백암온천을 사례로-”, 지리학논총 제17호, 서울대학교.

김병문(1986). “한국관광자원의 유형별 분포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봉균(1969). “제주도 신양리 및 고산리지구의 신양리층에 대한 층서 및 고생물학적 연구”, 지질학회지 제5권 제2호, 대한지질학회.

김상호(1963). “제주도의 자연지리”, 지리학 제1호.

김선희(1992). “해안지역의 관광개발 실태에 관한 고찰”, 응용지리 제15호, 성신여자대학교.

김재관(1989). “영남권의 관광지역구조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재관 · 김종근(1987). “관광자원개발의 특성화에 관한 지역연구-부산 금정산권을 중심으로-”, 지역개발논문집 제14집, 경희대학교.

김정평(1992). “한국의 관광자원개발정책분석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태보(1983). “제주권개발을 위한 지구권의 설정과 개발전략에 관한 연구-도농간통합개발모형의 모색-”, 논문집 제16집 사회과학편, 제주대학교.

----- (1991). “제주도 종합개발의 성과와 문제점-경제적 측면을 중심으로-”, 사회발전연구 제7집, 제주대 사회발전연구소.

- 김혜숙(1991). “관광심리현상에 관한 연구”, 관광레저연구 제3호.
- 남기영(1966). “제주도의 지질과 지하수”, 지하수원조사보고 제3호, 국립지질조사소.
- 문병희(1988). “체류형 관광지 개발-제주지역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동원 · 오남삼(1981). “제주도 파식대에 대한 지형학적 연구”, 지리학논총 제8호, 서울대학교.
- 박병수(1984). “제주도 용암동굴에 관한 지리적 고찰”, 사회문화연구 제3집, 대구대학교.
- 부만근(1979). “제주도 개발과 토지이용정책”, 논문집 제11집(인문사회과학편), 제주대학교.
- (1991). “제주지역개발의 현재와 미래-관광개발을 중심으로-”, 사회발전연구 제7집, 제주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 서경림(1976). “제주도의 관광자원 이용실태와 과제”, 논문집 제8집, 제주대학교.
- (1977). “제주도 관광자원의 활성화 방안”, 논문집 제9집, 제주대학교.
- 서창완(1991). “국립공원관리를 위한 GIS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한라산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성대(1984). “관광자원 분포성향에 의한 제주도의 지역별 관광성”, 논문집 제18집, 제주대학교.
- 신행철 · 오남삼 · 김승호(1987). “외화수입증대를 위한 관광지새마을운동 추진방안-제주도를 중심으로-”, 새마을연구논문집 제4집, 제주대학교.

- 심상도(1986). “관광현상이 원주민 지역사회에 미치는 사회문화적 영향-제주도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해송(1990). “국민관광성향 변화에 따른 관광자원개발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남삼(1990). “관광지주민의 관광행태에 관한 연구 : 서귀포시를 사례지역으로 하여”,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오남삼 · 임을화(1986). “관광객 유치환경조성과 제주도민 참여에 대한 일고찰”, 논문집 제3집, 제주대학교.
- 오홍철(1969) “제주도의 취락입지에 관한 연구-변천과정과 입지요인을 중심으로-”, 지리학 제4호, 대한지리학회.
- 원종관(1975). “제주도의 형성과정과 화산활동에 관한 연구”, 이학논집 제1집, 건국대학교.
- (1976). “제주도에 분포하는 화산구의 구조해석에 관한 연구”, 이학논집 제2집, 건국대학교.
- 윤양수(1991). “제주도 개발의 현황과 과제”, 사회발전연구 제7집, 제주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 이병설(1979). “제주도의 바람에 관한 연구”, 지리학논총 제6호.
- 이익수(1994). “지역관광자원개발 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장춘(1983). “제주지역 관광개발의 방향”, 논문집 제13집(사회과학편), 경기대학교.
- 이후석(1990). “관광지역에 대한 지리학적 연구동향과 과제”, 동국지리 제11호, 동국지리학회.

- 임한수 · 양미자(1986). “용인지역의 관광자원 분포유형과 관광행태에 관한 연구”, 응용지리 제9호, 성신여자대학교 한국지리연구소.
- 임한수(1988). “한국의 국제관광자원 개발전략에 관한 연구-특히 통일정책과 관련하여”, 응용지리 제11호, 성신여자대학교.
- 장병구(1989). “제주관광개발과 자원보존”, 사회발전연구 제5집, 제주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 장성수(1985). “권역별 관광자원실태의 비교 고찰-제주도내 5개 권역을 대상으로-”, 논문집 제20집 사회과학편, 제주대학교.
- 진남근(1991). “제주지역 관광지 개발에 관한 연구(중산간지대의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진대식(1993). “성산포 관광개발 방향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승운(1977). “제주도 관광지역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국내외 서적 및 기타

- 교통부(1990)., 「1991년도 관광동향에 관한 년차보고서」.
- 김기영 · 전명식(1990). 「SAS 군집분석」. 서울 : 자유아카데미..
- 김병문(1989). 「관광지리학」. 서울 : 형설출판사.
- (1990). 「관광자원학」. 서울 : 백산출판사.
- 김성혁(1994). 「관광학원론」. 서울 : 형설출판사.
- 김안제(1982). 「환경과 국토 -이론과 정책-」. 서울 : 박영사.
- 김종근 · 길용현(1988). 「관광지리학」. 서울 : 집문당.

- 김종철(1995). 「오름나그네」. 서울 : 높은오름.
- 김진섭(1990). 「관광학원론」. 서울 : 대왕사.
- 김충련(1994). 「SAS라는 통계상자-통계분석 및 시장조사기법을 중심으로」.
서울 : 데이타리서치.
- 김홍운(1989). 「관광자원론」. 서울 : 일신사.
- 문화체육부(1995). 「1995년도 관광동향에 관한 년차보고서」.
- 박봉규, 장남기, 이인숙, 최형선, 김종희, 오인혜, 김옥경 공저(1994). 「생태
적 조화를 이루는 인간 환경」. 서울 : 동성사.
- 박석희(1989). 「신관광자원론-개발 · 이용 · 관리-」. 서울 : 명보문화사.
- 전국지역개발학과 교수협의회(1994). 「지역개발론-이론과 실제-」. 서울 :
법문사.
- 제주도(1973). 「통계연보」.
- (1985). 「특정지역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제1권 「관광개발계획」.
- (1992, 1994). 「제주도통권」.
- (1993). 「제주도지」 제1권.
- (1994).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제주도종합개발계획(요약)」.
- (1994). 「제주통계연보」.
- (1994). 「제주도종합개발계획과 투자안내」.
- (1995). 「제주관광메뉴얼」.
- 제주도 · 제주도관광협회(1994). 「관광객만족도 조사」.
- 제주도관광협회(1995). 「관광자료집」.
- 제주문화방송(주)(1990). 「제주무인도학술조사」.
- (1991). 「제주유인도학술조사」.

- 조맹수(1986), 「제주의 섬」. 제주 : 도서출판 조약돌.
- 뿌리깊은 나무(1983). 「한국의 발견, 제주도」. 서울 : 뿌리깊은 나무.
- 한국관광개발연구원(1994). 「한국관광년감」.
- 한국관광공사(1990). 「관광통계연감」.
- (1995). 「국민여행실태조사」.
- 한국이동통신제주지사(1995). 「제주관광가이드」, 「제주의 문화유산」, 「제주의 생태계」.
- Cooke, R. V. & Doornkamp, J. C. (1990). *Geomorphology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a new Introduction*. Oxford University press.
- Doornkamp, J. C. (1985). *The Earth Sciences and Planning in the Third World*. Liverpool : University Press.
- Gunn, C. A. (1988). *Tourism Planning*. N. Y. : Taylor & Francis.
- Mathieson, A. & Wall, G. (1982). *Tourism : economic, physical and social Impacts*. N. Y. : Longman.
- Kelly, J. R. (1982). *Leisure*. New Jersey : Prentice-Hall.
- Krause, R. G. & Curtis J. E. (1973). *Creative Administration in Recreation and Parks*. St. Louis : C. V. Mosby Co.
- Martin, F. & Whittle, A. (1988). *Core Geography Leisure*.
- Pearce, D. (1989). *Tourist Development*. N. Y. : Longman Scientific & Technical.
- Smith, S. L. J. (1983). *Recreation Geography*. London : Longman.

<부록 1> 제주도의 관광자원

번호	관광지	문화적 요인			자연적 요인		
		문화유산	산업관광시설	레크레이션시설	해안지형	내륙화산지형	생태계
1	용두암 전설				하효리현무암괴, 유상구조,파식대,조면암과 현무암의 단애		섬갯분취,낙시돌풀
2	용연			야간드라이브코스		자연연못,용연야법	
3	레포츠공원			다목적운동장,배구장,롤러스케이팅장,야영장,야유회장,어린이놀이시설, 산책로			
4	관탈섬		등대	낙시터	석영안산암절암석,화강암포획,퇴적층,해식애	바위연꽃과 덩굴모밀의 북한계, 큰관탈도 39종,작은관탈도 7종	조류 8종,곤충 11종
5	제주향교	대성전,명륜당,전사청,계성사,협문,위패,공자의 동상	석전제				거숭30여그루
6	관덕정	사적지,그림,채액3편,제주목관아지					
7	향사당	향청,제액					
8	해변공연장		공연장,노천관람석,시립합창단연습실,문화사랑방,전시실,놀이마당				
9	사라봉	봉수대	팔각정,등대,역사기념공원	운동시설,산책로		기생화산,사라낙조	
10	모충사 사당		의병항쟁기념탑,조병호기념탑,김만덕할머니묘탑				

번호	관광지	문화적 요인			자연적 요인		
		문화유산	산업관광시설	레크리에이션시설	해안지형	내륙화산지형	생태계
11	칠머리당굿전승지	무속제(영등환송제, 영등송별제)					
12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생활양식과 생활 · 생업에 관한 36종류의 내용을 전시(총 6,340점)	95제주타임캡슐 모형, 시청각실			지질모형도, 지질분포, 제주도형성과정도, 용암류, 동굴암석, 용암수형, 구성암석 등 1,522	식물수직분포 모형, 재감, 버섯, 한란, 해조류, 해류, 어류, 조류, 포유류 등 식생 3,795점, 동물 8,316점, 해양생물 3,652점
13	신산공원		올림픽성화기념조형물, 95제주타임캡슐매설지	산책로			
14	문예회관		공연시설(대극장, 소극장, 전시실, 연습실, 분장실, 놀이마당				
15	제주민속박물관		공연시설, 공방시설, 민속교육시설, 교실, 연습실				
16	삼성혈	삼성혈, 삼성전, 혈단비, 유공자기념비, 송보당, 진사청, 총무청, 모성각, 홍살문, 봉사청, 제주개벽신화, 춘추기대제, 건시제					곰솔, 팽나무, 구실잣밤나무, 녹나무, 표고버섯 등 54종
17	오현단	제단, 오현의 위패를 상징하는 조두석, 마애명, 직려유허비					
18	제주읍성	성지					

19	벚꽃거리			제주벚꽃큰잔치, 야간데이트코스			
20	제주교육박물관	도서류8,832문서류2,327,기록류1,132교구류572 민구류2,095복식류3,003초가·농민구류1,262	영상실				
21	제주시종합경기장			메인스타디움,야구장,실내체육관,실내수영장,연식정구장,보조경기장,한라문화제,조랑말경주대회,감귤축제			
22	화북비석거리	비석13개,환해장성					
23	해신사	사당					
24	별도봉				알오름,포획암 조면암질안산암, 자살바위,해식 동,해식에애기 업돌		
25	화북진성	성벽,내벽의기단석					
26	제주민속박물관	기본생활용구,생업용구,신앙용구,관혼용구,유희용구,전통초가,고지도사본 3,000점, 민속책자20여권,무신상143기					
27	삼사석	돌과녁2개,석실,삼사석비					
28	원당사지 5층석탑	불탑사,석탑					

29	삼양해수욕장			모래뜸지, 해수욕장, 낚시터	사빈해안, 용천수		
30	이호해수욕장			해수욕장, 낚시터, 야영장, 야간드라이브코스	사빈해안		
31	월대	비석, 수정사지					소나무, 팽나무, 뱀장어, 은어 서식
32	방사탑	탑 2기					
33	연대	연대					
34	삼무공원		팔각정, 건본기차	체육시설			
35	조설대	망곡터, 움각된 바위, 구한말 집의 계원들의 모임터, 문연사					
36	고인돌	고인돌 2기					
37	탐라목석원	무덤, 맷돌, 물허벅	고목·석두 1,500여점				
38	방선문	마애명 37개				조면암절안산암, 유수의 하각작용, 영구춘화	진달래
39	오라컨트리클럽			골프장			
40	산천단	사적지, 사적비					곰솔
41	제주컨트리클럽			골프장			
42	왕벚나무자생지						왕벚나무
43	한라수목원		시청각실	산림욕장, 체력단련시설			목본류 506 초본류 90아 열대식물실 105자생식물실 103종 식순화실 20 8수생식물원 20종

번호	관광지	문화적 요인			자연적 요인		
		문화유산	산업관광시설	레크레이션시설	해안지형	내륙화산지형	생태계
44	신비의도로		실제 경사도가 낮은 곳이 높게 보이는 착시현상				
45	제주도 축산진흥원		축사,목장,한우사육시험센터				육우,한우,제주마,재래돈,사슴,재래닭,재래견(1178두)
46	제주절물자연휴양림		연못,순환로,교육자료관,자연관찰원,전망대,야외교실	등산로,야영장,놀이시설,취사장,약수터,운동시설,쉽의자,민속놀이시설,임간수련장,급수대,산책로		기생화산,원형분화구	
47	명도암관광휴양목장		열대화조온실,꽃동산	송마클럽하우스,민박시설,어린이놀이시설,산책로			말,면양,열대화조(315두)
48	천지연폭포	전설		산책로,야간관광시설,서귀포칠십리축제		조면절안산암,주상절리,굴식작용,석간수의용출	담팔수나무,자생지,가시딸기,송엽난,구실잣밤나무,산유자나무,동백나무 등 난대림지대,무대장어,서식
49	서귀포층패류화석				퇴적암의 용기,단애		중생대말백악기 패류화석,산호화석,어류등뼈,연체동물,저서성및부유성 유공충화석
50	서귀포항		부두시설,어류판매장,어선,화물선,과여객선,유람선	산책로,서귀포칠십리축제	해안단애,무인도경관		

번호	관광지	문화적 요인			자연적 요인		
		문화유산	산업관광시설	레크리에이션시설	해안지형	내륙화산지형	생태계
51	정방폭포	전설			조면암절안산암, 주상절리,해식동,해식애,해안폭포,폭대의 해식침식작용,해안단구		
52	소정방폭포		전망대	담수욕	조면암절안산암, 주상절리,해식동,해식애,해안폭포,해안단구		
53	외돌개	최영장군설화,할망바우전설			조면암절안산암,파식대,주상절리,시스택		
54	삼매봉		삼각점,팔각정,TV중계소,순환도로	체력단련시설		후중분출분석구,이중화산,화구원,화구구의룡산	
55	기당미술관		건물외형,회화·조각·공예·판화·서예작품450점				
56	문예회관		아동독서실,도서반입실,정기간행물실,향토자료실,독서실,소회의실,특별열람실,전시실				
57	돈내코국민관광지	전설		야영장,담수욕		조면암절안산암,폭포,계곡,소	
58	수악계곡		다리			현무암,건천,기암절벽,폭포소	온대림,난대림
59	천제연폭포	지명유래	선임교,천제루,칠선녀축제			조면암절안산암,주상절리,폭대,암석동굴	난대림
60	선임교		아치형철제다리,일곱선녀상,석등				
61	천제루		누각,신선도,선녀도,오복천조각상				

62	제주관 광식물 원		중앙전망탑,잔디 광장,한국·일본· 이탈리아·프랑스 식 정원,침상원	관광유람열차			식생3,700 여종
63	관광단 지입구 소공원		인공폭포,분수대, 물허벅상	산책로			
64	제주관 광수족 관		돌고래쇼장,미니 수족관,야외수족 관,야외광장,토산 품점	패러세일링시설			돌고래,바 다사자,바 다표범,펭 귄,낙타,열 대어
65	중문해 수욕장			해수욕장,야영장 ,윈드서핑최적지	사빈해안,해 식애,해식동		
66	중문민 속박물 관	민속촌28동, 농어민구3,00 0여점					
67	대포동 주상절 리			낙시터	주상절리,해 식애		
68	대유랜 드		토산품점	수렵장,야외클레 이사격장,피스톨 사격장,스키트사 격장			
69	중문오 렌지파 크		감귤원,난전시장, 연회장				
70	범화사 지	주춧돌,대웅 전					
71	약천사		동양최대의 사찰, 대웅전,요사채,굴 법당,삼성각,사리 탑,대형분수대,연 못,나한전,유료양 로원				
72	강정천			담수욕,은어낚시 ,바다낙시터,해 수욕		안산암, 계곡,하 수의 하각작 용	송림
73	범섬	사적지		낙시터,스쿠버다 이빙지,해상관광	조면암질안 산암,해안단 애,해식애, 해식동		박달목서 자생,식생 142종

73	범섬				용천수,주 상절리,파 식대		조류14종, 곤충40종
74	도순다 원						차나무
75	녹나무 자생지						자생녹나 무
76	서귀포 자연휴 양림		전망대,잔디광 장,통나무산막	산림욕장,산책로,오 토캠프장,야영장,협 곡탐험로,체력단련 실,나무평상,어린이 물놀이터		기생화산,분 화구가 없 음,계곡,폭 포	편백림
77	1100고 지휴게 소		1100도로휴게 소				
78	만세동 산	3·1운동 진원지	기념비,조각상				
79	함덕해 수욕장			해수욕장,산책로,야 영장,낚시터,모터보 트시설,윈드서핑장 소	사빈해안		
80	연북정	정자,편액					
81	북촌다 려도			낚시터			
82	산굼부 리			전망경설치,촬영지		마르형화구, 화구가 백 록담보다 크고 높다. 현무암,자연 굴,바위틈의 낙수,남북사 면의 경사 도차이	식물420여 종,포유류, 조류,파충 류서식
83	교래농 어촌휴 양단지		토산품판매장, 화훼원,분재원, 표고재배장,무 공해식품재배 장,조류사육장, 유기농업재배 단지,주말농장, 건강식품재배 단지,민속자료 실농업교육연 수원,조랑말사 육장,연못,자연 건강음식점	승마장,잔디썰매장, 행글라이더장,운동 시설,간이골프장,종 합스포츠센터,어린 이놀이시설,테니스 장,집합장,다목적공 연장		기생화산,원 형화구	

84	명진리조트		분수대,도자기전시실,도예공방,예식장,연못				삼나무,소나무
85	경주마육성목장		종모마방,종부소,마필진료소,마필수영장,연습주로,육성마사,종부관람장소				종모마,경주마
86	제주비행훈련원		시뮬레이터3대,할주로,훈련소,경비행기				
87	제주온천리조트		남녀사우나,온천탕	어린이놀이동산		자연탄산수용출	대나무,야자수
88	세화송당온천지구		종합판매장,온천장	오락시설		자연온천수	
89	김녕해수욕장			해수욕장,야영장,낚시터	사빈해안		
90	김녕사굴	전설				로피현상,암봉,포도모양의 벽진주,벽면의 유상구조,종유석,석순,석실,석주	
91	만장굴			유도화나무산책로		유상구조,용암석주,용암봉,용암교,거북모양의 용암구,포도모양의 용암종유,동굴내부경관	
92	월정리종유굴					선용암후종유형태의 석회동굴,종유관,석순,석주,석화,동굴내부에 또다른 동굴형성	
93	동북리관광체험어장			도구대여소,체험어장			
94	비자림		청소년수련소	야영장,취사장			

번호	관광지	문화적 요인			자연적 요인		
		문화유산	산업관광시설	레크레이션시설	해안지형	내륙화산지형	생태계
94	비자림			씨름장,배구장,민속놀이시설,체력단련시설,산책로			비자나무군락지,희귀한기생식물 등식생280여종
95	문주란자생지				현무암초,패사퇴적,해식작용		문주란자생지, 식생57종(목본9종 나머지초본)
96	하도리철새도래지		저수지,양식장				황새,저어새백로,갈매기,청둥오리 등
97	별방성지	성지					
98	우도	진사김석린유애비,진사물통,개막동산(돌탑)		낙시터,스쿠버다이빙장소	이중화산,화구구,화구원,말굽형분화구,수중분출형태,퇴적암(소머리오름),해식애,해식동,산호사해안		초지310종조류29종,곤충116종
99	성산일출봉	일본군에 의한 군사용굴,성산일출봉칠석제		승마사진촬영장소,성산일출제	후중불출,간류산피단계,호마테,칼데라,육계도,육계사주,정상부의 웅희암 및조면암층의 풍화된 기암들,해식에타포니,솔트웨더링		초본식물150여종
100	식산봉	바위전설,지명유래		산책로		기생화산	소나무,왕대동백나무,까마귀쭉나무,후박나무,생달나무,후추 등,황근,큰천남성

101	섬지코지	봉수대	유채꽃단지		스코리아,해식애,타포니		소나무,팽나무,아카시아나무
102	신양해수욕장			해수욕장,야영장,윈드서핑최적지,보드세일링훈련장,낚시터	사빈해안		소나무숲
103	혼인지	석비,사적지,설화				자연연못	연꽃
104	제주민속촌	민속촌117동농어·민구류14,000점	민속공연장,야외전시장,해수욕장무형문화재방영				
105	성읍민속마을	민가300여채향교,일관헌,돌하르방,성터,연자매,옛관공서터,비석,민요,민속놀이,향토음식,민간공예,방언					느티나무,소나무,팽나무,녹나무,생달나무
106	대한항공미래항공관		1993대전엑스포 전시물인 대한항공미래항공관이설지				
107	표선해수욕장			해수욕장,야영장	사빈해안		소나무밭
108	영화박물관		영화박물관,야외셋트,한국영화관,영상박물관,백남준비디오아트,원형전시실,영상의 역사공간,옥상전시장,기념물서적판매소,밀납인형전시장,로케이션촬영장소,뮤지엄카페,Public Hall				
109	남원큰영			기초체력단련시설,모터보트이용지,낚시터	해식애,해식동주상절리,스코리아,조면암절안산암		

110	지귀도			낚시터,스쿠버다이빙장소	현무암초, 3단계의 용암류		목본15종,초본62종,조류7종,곤충17종
111	무수천					조면질암 산암기암 절벽,폭포,호수	후박나무,구실잣밤나무,동백나무,장어서식
112	항몽유적지	사적지,순의비,순의문,토성,장수물,돌쩌귀,살맞은돌	전시관(그림7폭)			암반수	
113	신천지미술관		조각품289점,회화66점,시비47점야외광장				
114	지암요		도자기제작과정견학,도자기판매소				
115	제주경마장		관람대,경주로,야외공연장,분수대,연못	청소년종합놀이터,아동용·유아용복합놀이터,어린이승마장			
116	한라파크승마장			승마장			승마용말
117	수산유원지			야외수영장,놀이시설,낚시터			곰솔
118	곽지해수욕장		적십자청소년훈련소	해수욕장,야영장,원드서핑지	사빈해안,용천수		
119	한림공원	초가7동,민구류20여점		민속촌,어린이놀이시설,양궁장		용암동굴,용암수형	열대및아열대식물 1,000여종
120	협재굴					동굴지표면의폐사구룡,용암주,암봉,유상구조,로피현상,중유석,석종,석주,석순,용암수형	
121	비양도			낚시터,야영장	수중분출로 인한 화산도,이중화산		대나무,소나무,새

121	비양도				두개의분화구, 분석구,스코리 아,화산탄,최후 분출,시스택노 치,해식애,역빈 사력,사빈해안 분포		우리나라유 일의 비양 나무자생지, 식생234종, 조류30종,곤 충135종
122	협재해 수욕장			해수욕장,야영 장,산책로,유람 선관광,뽕시터	사빈해안		소나무밭
123	돌하르 방직판 장		제작과정견학, 전시·판매소				
124	북제주 군제주 청소년 수련원		회의실,시청각 실에절교육실, 독서실,취미교 실,생활관,인공 폭포,실내연못				소나무숲
125	선인장 자생지						선인장
126	남읍금 산공원	포제단	민속박물관				난대림,상록 수150여점
127	명원대	축대,비 석,석교					팽나무군락, 푸조나무
128	명월성 지	성지					
129	어음리 빌레못 굴	중기구 석기유 적지,4· 3사건 때피난 지				다층구조,용 암종유,용암 석순,용암구, 석주,용암수 형	
130	분재예 술원		돌담,연못,돌다 라,인공폭포,종 묘장,분재보호 실난전시장				수목100여 종,분재40여 종
131	서관관 광휴양 목장		가축사육시설, 농산물판매장	산림욕장,산책 시설,승마장			
132	서광다 원						차나무
133	차귀도	전설		뽕시터	화산도,현무암 퇴적층,포획암		목본12종,초 본98종

133	차귀도				단층구조,해안단애,해식동,주상절리		조류14종,곤충34종
134	절부암	절부암,비명,전설					사철나무,후박나무,동백나무,돈나무 등난대식물군락
135	수월봉	전설	육각정		초기기생화산,용천수,해안단애,해식동		
136	용수리 철새도래지		저수지				청둥오리
137	납읍관 광휴양 목장		측사,관리사,연수원,예식장,원두막정자,주말농원,전망휴게소	인조잔디썰매장,종합스포츠타운,간이골프장,야영장,승마장,투우·투견·투계장,운동장			초지,억새
138	산지별 꿀가공 공장		벌꿀가공공장,판매장				
139	원동마을터	4·3사건현장터					
140	이시들 목장		목장,한림수직공장,판매소	제주억새큰잔치			초지,비육우,양(3,000여두)
141	송악산	일본군이만든군사용굴,한시비,패총유적지		늑시터,전망터,조랑말촬영장소	수중분출,이중화산,외륜산,화구원,화구구스코리아,단애해식동,해식애		
142	마라도	할망당전설,할망당제,포제	등대	해상관광	동고서지형태,암석해안,해식애,해식동,단애,절리,구상풍화,파식대,파적퇴적물		해송,초본식물163종조류28종,곤충113종
143	하모해수욕장			해수욕장	사빈해안		
144	추사적거지	초가4채,연자마	추사기념관(그림·글씨29점)				

144		돌하르방	기념석비				
145	대정성지	성지,성벽					
146	대정향교	명륜당,대성전,동재,서재 신삼문,정문, 건축구조,위패,석전제					
147	덕수리 불미공예	노동요(불미노래,서우제소리,술깃소리),불미공예기술	불미마당 재현장				
148	산방산	전설				조면암질의 중상화산,수중형성후유기해식동,절리,낙수현상,현재침식작용,타포니	석곡,지네발난,풍란,섬회양목자생지,구실갯바나무,후박나무,참식나무,생달나무,자금우,겨울딸기 등 상록수림
149	하멜표류기념비		기념비				
150	용머리해안	일본군이 만든 군사용동굴,전설			용암수형,분석구,옹회암및조면암층,층내에현무암질화산괴·섬장반암편발견,해저퇴적 당시의 성층흔적,해식에,파식대,암석낙하현상,해식동타포니,풍극,풍혈,유상구조		
151	제주조각공원		삼각타워,혼발광장,인공호수,인공폭포,잔디조각광장,연못	산책로,어린이놀이시설			

151			전망대,기념품 센터,조각작품 160여점				
152	화순해 수욕장			해수욕장,윈드 서핑지,담수욕 장	사빈해안,용천 수		
153	안덕계 곡	전설				조면암,주상절 리,계곡,폭포, 소	담팔수나무 ·상사화자 생,난대수종 과계곡하층 에 남오미 자,바람둥취 ,백량금 등 300여종의 식물분포
154	월라봉 박수기 정바위				조면암질안산 암,기생화산,단 애,해식애,해식 동,해안폭포		송림
155	파라다 이스콜 프클럽			골프하우스,잔 디구장,테니스 장,게이트볼장			
156	백록담	전설				순상화산,화구 호,안산암및유 문암질조면암 층,백록담현무 암층,용암류의 차별침식현상, 애추	초본,장초본 ,목본,양치 식물,고산식 물57과169 종
157	한라산 등산로	일제 에 의한 대공 포진 지, 존자 암터	관리소,대피소, 한라산개방비, 고상돈기념돌 무덤,표고빛관 리소,1600m표 지석	등산로,철쭉제, 만설제		조면암,주상절 리,용암굴,V자 계곡,폭포건천, 32개봉우리	식생1,800여 종,포유류16 종,조류239 종,양서류9 종파충류9 종곤충1,600 여종
158	제주그 랜드호 텔카지 노		어학실,토산품 점	나이트클럽,카 지노시설			
159	제주칼 호텔카 지노		토산품점	나이트클럽,카 지노시설			

160	남서울카지노		토산품점	나이트클럽, 카지노시설			
161	오리엔탈카지노		토산품점	나이트클럽, 카지노시설			
162	하얏트카지노		토산품점, 어학실	나이트클럽, 카지노시설			
163	신라카지노		토산품점, 어학실	나이트클럽, 카지노시설			
164	서귀포칼카지노		토산품점	나이트클럽, 카지노시설			
165	제주항서방파제			낙시터			
166	내도동 해변			낙시터	현무암초		
167	도두동 해변			낙시터	현무암초		
168	중엄리 해변			낙시터	현무암초		
169	형제도			낙시터, 스쿠버다이빙장소	화산도, 해안단애, 패사와자갈해안, 해안사구, 주상절리		목본2종, 초본50종, 조류6종, 곤충26종
170	문도		등대, 삼각점 표시	낙시터, 스쿠버다이빙장소	조면질안산암, 해식애, 주상절리, 파식대		큰보리장나무, 후박나무 자생, 목본40종, 초본78종, 조류9종, 곤충52종
171	삼도			낙시터, 스쿠버다이빙장소	조면질안산암, 주상절리, 해식애, 해식동, 파식대, 지반융기 흔적		파초일엽자생지, 솔잎난 자생, 식생157종, 조류10종, 곤충66종
172	강정동 해변			낙시터	현무암초		
173	추자도	최영장 군사당, 처사각, 전통가옥2채		낙시터	해남반도연장, 대부분석영반질로 구성, 단애, 역빈해안, 추자10경		소나무, 아카시아, 약초
174	영주산	무덤, 기우처	삼각점, 산불감시소	패러글라이딩최적지		기생화산, 분화구, 하천	
175	한라승마장			승마장			승마용말

176	서광승마장			승마장			승마용말
177	성읍승마장			승마장			승마용말
178	정의승마장			승마장			승마용말
179	바우승마장			승마장			승마용말
180	알프스승마장			승마장			승마용말
181	동부승마장			승마장			승마용말
182	이어도승마장			승마장			승마용말
183	명예승마장			승마장			승마용말
184	탐라승마장			승마장			승마용말
185	송당승마장			승마장			승마용말
186	명산승마장			승마장			승마용말
187	그린승마타운			승마장			승마용말
188	에덴승마장			승마장			승마용말
189	초원승마장			승마장			승마용말
190	15번지농원		농원				파인애플,밀감,바나나,키위,파파이아,난,신선초,알로에
191	삼성농원		농원				파인애플,밀감,난
192	제주농원		농원				열대과수,감귤
193	내성농원		농원				열대과수,감귤
194	서귀포농원		농원				열대과수,감귤
195	길농원		농원				열대과수,감귤
196	서림농원		농원				열대과수,감귤
197	비바리농원		농원				열대과수,감귤
198	하르방농원		농원				열대과수,감귤
199	도순바나나		농원				열대과수,감귤
200	오렌지난원		농원				열대과수,감귤
201	마라도농원		농원				열대과수,감귤
202	하도리관광체험어장		양식장,어장관리소,증식장,유어선계류장	인공낙시터,체험어장,해수욕장			
203	새섬			낙시터	표선리현무암,해식애		소나무,억새풀

<부록 2> 제주도의 관광자원 도표

번호	관광지	문화적 요인			자연적요인		
		문화유산	산업관광 시설	레크레이 션시설	해안지형	내륙화산 지형	생태계
1	용두암	1			4		2
2	용연			1		1	
3	레포츠공원			7			
4	관탈섬		1	1	4		47
5	제주향교	7	1				1
6	관덕정	12					
7	향사당	2					
8	해변공연장			6			
9	사라봉	1	3	2		1	
10	모충사	1	3				
11	칠머리당굿전승지		2				
12	제주도 민속자연사 박물관	6,340	2	0		1,522	15,763
13	신산공원		2	1			
14	문예회관		6				
15	제주관광민속관		5				
16	삼성혈	5	3				54
17	오현단	4					
18	제주읍성	1					
19	벚꽃거리			2			1
20	제주교육박물관	19,223	1				
21	제주시종합경기장			9			
22	화북비석거리	14					
23	해신사	1					
24	별도봉				7		
25	화북진성	2					

번호	관광지	문화적 요인			자연적요인		
		문화재	산업관광 시설	레크레이 션시설	해안지형	내륙화산 지형	생태계
26	제주민속박물관	3,163					
27	삼사석	4					1
28	원당사지5층석탑	2					
29	삼양해수욕장			3	2		
30	이호해수욕장			4	1		2
31	월대	2					4
32	방사탑	1					
33	연대	1					
34	삼무공원		2	1			
35	조설대	4					1
36	고인돌	2					
37	탐라목석원	3	1500				
38	방선문	37				2	1
39	오라컨트리클럽			1			
40	산천단	2					1
41	제주컨트리클럽			1			
42	왕벚나무자생지						1
43	한라수목원		1	2			1032
44	신비의 도로		1				
45	제주도축산진흥원		3				7
46	제주절물자연휴양림		6	11		2	1
47	명도암관광휴양목장		2	4			3
48	천지연폭포	1	1	2		4	7
49	서귀포층 패류화석				2		5
50	서귀포항			6	1		1

번호	관광지	문화적 요인			자연적요인		
		문화재	산업관광 시설	레크레이 션시설	해안지형	내륙화산 지형	생태계
51	정방폭포	1			7		
52	소정방폭포			2	6		
53	외돌개	2			4		1
54	삼매봉		4	1		5	
55	기당미술관		450				
56	서귀포문예회관		8				
57	돈내코국민관광지	1		2		4	3
58	수악계곡		1			5	2
59	천제연폭포	1	3			4	5
60	선임교		3				
61	천제루		4				
62	제주관광식물원(여미 지)		7	1			3700
63	관광단지입구 소공원		3	1			
64	제주관광수족관(로얄 마린파크)		5	1			6
65	중문해수욕장			3	3		
66	중문민속박물관(베릿 내어촌)	3,028					
67	대포동 주상절리			1	2		1
68	대유랜드		1	4			
69	중문오렌지파크		3				
70	범화사지	2					
71	약천사		9				
72	강정천			4		3	1

번호	관광지	문화적 요인			자연적요인		
		문화유산	산업관광 시설	레크레이 션시설	해안지형	내륙화산 지형	생태계
73	범섬	1		3	7		156
74	도순다원						1
75	녹나무자생지						1
76	서귀포자연휴양림		3	8		4	1
77	1100휴게소		1				
78	만세동산	1	2				
79	함덕해수욕장			6	1		
80	연북정	2					
81	북촌 다려도			1			
82	산굼부리			2		6	420
83	교래농어촌휴양단지		14	10		2	
84	명진리조트		5				2
85	경주마육성목장		7				2
86	제주비행훈련원		4				
87	제주온천리조트		2	1		1	2
88	세화송당온천지구		2	1		1	
89	김녕해수욕장			3	1		
90	김녕사굴	1				8	
91	만장굴			1		7	
92	월정리종유굴					6	
93	동복리 관광체험어장		2				
94	비자림		1	7			280
95	문주란자생지				3		57
96	하도리철새도래지		2				5
97	별방성지	1					

번호	관광지	문화적 요인			자연적요인		
		문화유산	산업관광 시설	레크레이 션시설	해안지형	내륙화산 지형	생태계
98	우도	3		2	9		339
99	성산일출봉	2	1	2	10		150
100	식산봉	2		1		1	9
101	섭지코지	1	1		3		4
102	신양해수욕장			5	1		1
103	혼인지	3				1	1
104	제주민속촌	14,117	3	1			
105	성읍민속마을	312					5
106	대한항공 미래항공관		1				
107	표선해수욕장			2	1		1
108	영화박물관		13				
109	남원 큰영			3	5		
110	지귀도			2	2		84
111	무수천					4	4
112	향파두리 향몽유적지	7	7			1	
113	신천지미술관		402				
114	지암요		2				
115	제주경마장		5	4			
116	한라파크승마장			1			1
117	수산유원지			3			1
118	곽지해수욕장		1	3	2		1
119	한림공원	20		3		20	1000
120	협재굴					10	
121	비양도			2	13		264
122	협재해수욕장			5	1		1

번호	관광지	문화적 요인			자연적요인		
		문화유산	산업관광 시설	레크레이 션시설	해안지형	내륙화산 지형	생태계
123	돌하르방직판매장		2				
124	북제주군 제주청소년 수련원		8				1
125	선인장자생지						1
126	납읍금산공원	1	1				150
127	명월대	3					2
128	명월성지	1					
129	어음리 빌레못굴	2				6	
130	분재예술원		7				140
131	서광관광휴양목장		2	3			
132	서광다원						1
133	차귀도	1		1	7		124
134	절부암	3					4
135	수월봉	1	1	0	4		
136	용수리 철새도래지		1				1
137	납읍관광휴양목장		7	9			2
138	산지벌꿀가공공장		2				
139	원동마을터	1					
140	이시돌목장		3	1			3
141	송악산	3		3	9		
142	마라도	3	1	1	9		192
143	하모해수욕장			1	1		
144	추사적거지	35	2				
145	대정성지	2					
146	대정향교	10					
147	덕수리 불미공예	4	1				

번호	관광지	문화적 요인			자연적요인		
		문화유산	산업관광 시설	레크레이 션시설	해안지형	내륙화산 지형	생태계
148	산방산	1				7	10
149	하멜표류기념비		1				
150	용머리해안	2			13		
151	제주조각공원		165	2			
152	화순해수욕장			3	2		
153	안덕계곡	1				5	300
154	월라봉 박수기정바위				6		1
155	파라다이스골프클럽			4			
156	백록담	1				6	169
157	한라산등산로	2	6	3		32	2,055
158	제주그랜드호텔		2	2			
159	제주칼호텔		1	2			
160	제주남서울호텔		1	2			
161	오리엔탈호텔		1	2			
162	하얏트호텔		2	2			
163	신라호텔		2	2			
164	서귀포칼호텔		1	2			
165	제주항서방파제			1			
166	내도동해변			1	1		
167	도두동해변			1	1		
168	중엄리해변			1	1		
169	형제도			2	5		58
170	문도		2	2	4		227
171	삼도			2	6		167
172	강정동해변			1	1		

번호	관광지	문화적 요인			자연적요인		
		문화유산	산업관광 시설	레크레이 션시설	해안지형	내륙화산 지형	생태계
173	추자도	4		1	4		3
174	영주산	2	2	1		3	
175	한라승마장			1			1
176	서광승마장			1			1
177	성읍승마장			1			1
178	정의승마장			1			1
179	바우승마장			1			1
180	알프스승마장			1			1
181	동부승마장			1			1
182	이어도승마장			1			1
183	명예승마장			1			1
184	탐라승마장			1			1
185	송당승마장			1			1
186	명산승마장			1			1
187	그린승마타운			1			1
188	에덴승마장			1			1
189	초원승마장			1			1
190	15번지농원		1				2
191	삼성농원		1				2
192	제주농원		1				2
193	내성농원		1				2
194	서귀포농원		1				2
195	길농원		1				2
196	서림농원		1				2
197	비바리농원		1				2

번호	관광지	문화적 요인			자연적요인		
		문화재	산업관광 시설	레크레이 션시설	해안지형	내륙화산 지형	생태계
198	하르방농원		1				2
199	도순바나나		1				2
200	오렌지난원		1				2
201	마라도농원		1				2
202	하도리관광체험어장		4	3			
203	새섬			1	2		2

<부록 3> 군집분석에 의한 관광지역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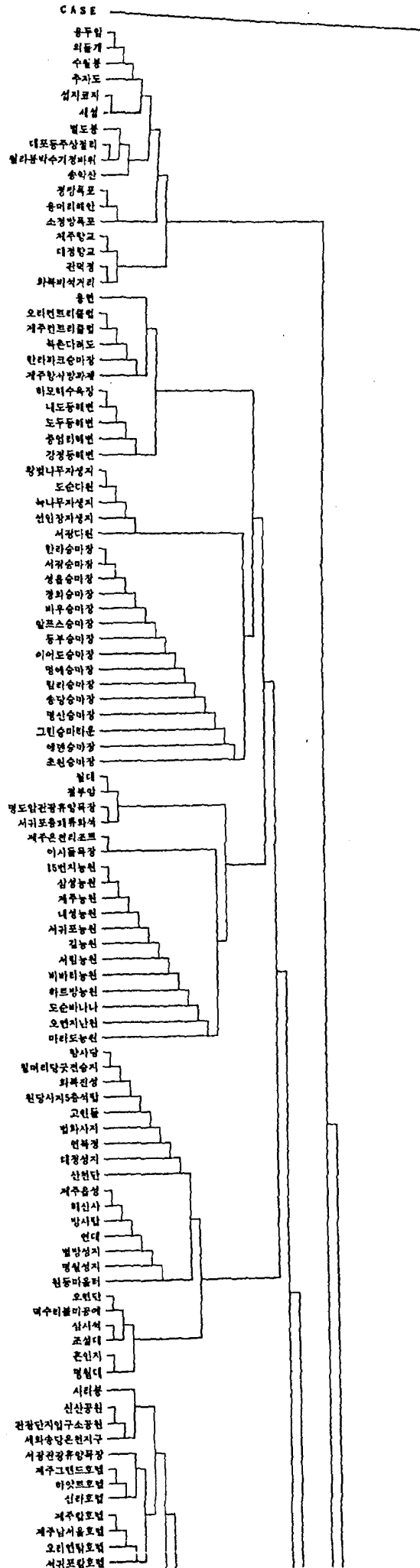
군집명		관광지명
군집 1		용두암, 외돌개, 수월봉, 섬지코지, 추자도, 별도봉, 정방폭포, 월라봉박수기정바위, 소정방폭포, 남원큰엉, 송악산, 용머리해안
군집 2		용연, 오라컨트리클럽, 제주컨트리클럽, 북촌다려도, 한라파크승마장, 제주항서방파제, 하모해수욕장, 내도동해변, 도두동해변, 중엄리해변, 강정동해변, 왕벚나무자생지, 도순다원, 녹나무자생지, 선인장자생지, 서광다원, 한라승마장, 서광승마장, 성읍승마장, 정의승마장, 바우승마장, 알프스승마장, 동부승마장, 이어도승마장, 명애승마장, 탐라승마장, 송당승마장, 명산승마장, 그린승마타운, 에덴승마장, 초원승마장, 월대, 절부암, 명도암관광휴양목장, 서귀포충패류화석, 제주온천리조트, 이시돌목장, 15번지농원, 삼성농원, 제주농원, 내성농원, 서귀포농원, 길농원, 서림농원, 비바리농원, 하르방농원, 도순바나나, 오렌지농원, 마라도농원, 사라봉, 신산공원, 관광단지입구소공원, 세화송당온천지구, 서광관광휴양목장, 제주그랜드호텔, 하얏트호텔, 신라호텔, 칼호텔, 제주남서울호텔, 오리엔탈호텔, 서귀포칼호텔, 서귀포항, 제주경마장, 하도리관광체험어장, 모충사, 만세동산, 동북리관광체험어장, 지암요, 돌하르방직판매장, 산지벌꿀가공공장, 신비의 도로, 1100고지휴게소, 대한항공미래항공관, 하멜표류기념비, 용수리철새도래지, 선임교, 중문오렌지파크, 천제루, 제주비행훈련원
군집 3		향사당, 칠머리당굿전승지, 화북진성, 원당사지5층석탑, 고인돌, 별화사지, 연북정, 대정성지, 산천단, 제주읍성, 해신사, 방사탑, 연대, 별방성지, 명월성지, 원동마을터, 오현단, 덕수리불미공예, 삼사석, 조설대, 혼인지, 명월대
군집 4		레포츠공원, 파라다이스골프클럽, 대유랜드, 삼무공원, 김녕해수욕장, 벚꽃거리, 표선해수욕장, 수산유원지, 삼양해수욕장, 화순해수욕장, 중문해수욕장, 대포동주상절리, 새섬, 해변공연장, 함덕해수욕장, 이호해수욕장, 팍지해수욕장, 신양해수욕장, 협재해수욕장, 제주시종합경기장
군집 5		제주도축산진흥원, 하도리철새도래지, 제주관광수족관, 식산봉, 산방산, 천지연폭포, 천제연폭포, 돈내코국민관광지, 무수천, 수악계곡, 삼매봉, 영주산, 강정천, 김녕사굴, 만장굴, 월정리종유굴, 어음리빌레못굴, 협재굴
군집 6		제주향교, 대정향교, 관덕정, 화북비석거리
군집 7		제주시문예회관, 제주관광민속관, 명진리조트, 경주마육성목장, 서군포시문예회관, 약천사, 북제주군제주청소년수련원, 영화박물관, 향파두리항몽유적지, 제주절물자연휴양림, 서귀포자연휴양림, 교래농어촌휴양단지, 남읍관광휴양목장
군집 8		관탈섬, 문주란자생지(난도), 형제도, 삼성혈, 지귀도, 범섬, 성산일출봉, 남읍금산공원, 분재예술원, 차귀도, 마라도, 백록담, 삼도, 산굼부리, 우도, 비자림, 비양도, 안덕계곡, 문도
군집 9	군집 1	방선문, 추사적거리, 성읍민속마을, 제주민속박물관, 중문민속박물관,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교육박물관, 제주민속촌
	군집 2	제주조각공원, 기당미술관, 신천지미술관, 탐라목석원
	군집 3	한라수목원, 한림공원, 한라산등산로, 제주관광식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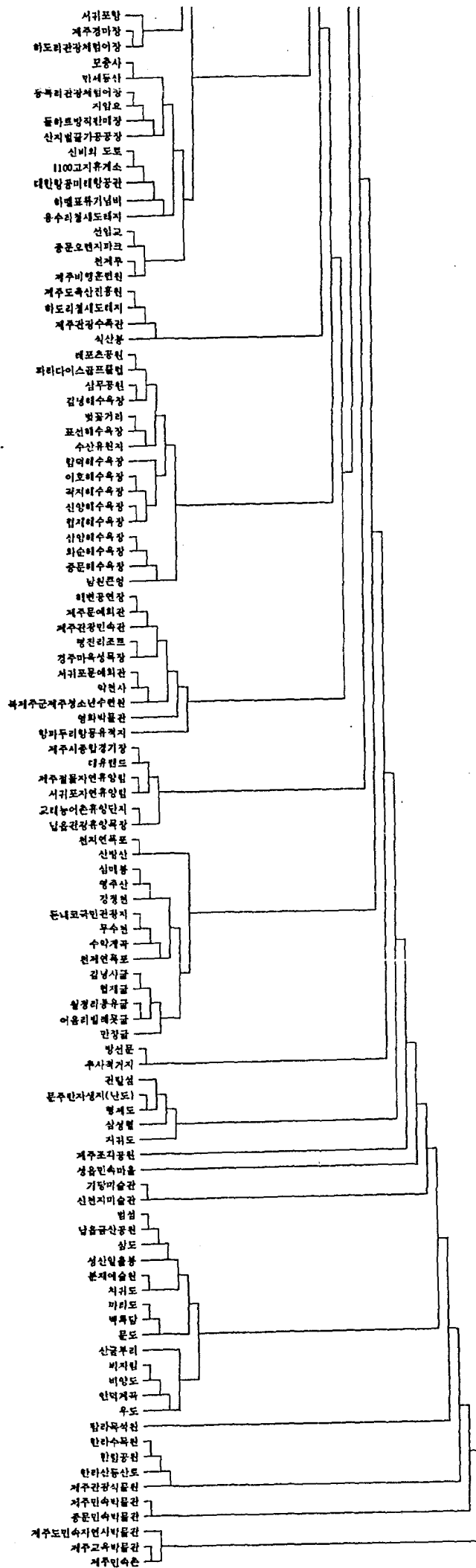
<부록 4> 군집분석에 의한 지역구분-가중치를 더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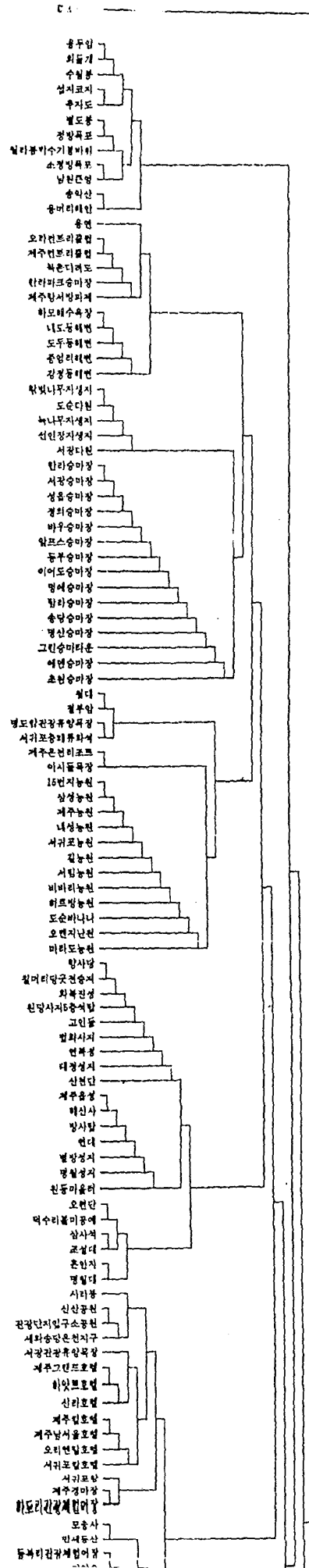
군집명		관광지명
군집 1		용두암, 외돌개, 수월봉, 섬지코지, 추자도, 별도봉, 대포동 주상절리, 정방폭포, 월라봉박수기정바위, 소정방폭포, 송악산, 용머리해안, 제주향교, 대정향교, 관덕정, 화북비석거리
군집 2		용연, 오라컨트리클럽, 제주컨트리클럽, 북촌다려도, 한라파크승마장, 제주항서방파제, 하모해수욕장, 내도동해변, 도두동해변, 중엄리해변, 강정동해변, 왕벚나무자생지, 도순다원, 녹나무자생지, 선인장자생지, 서광다원, 한라승마장, 서광승마장, 성읍승마장, 정의승마장, 바우승마장, 알프스승마장, 동부승마장, 이어도승마장, 명애승마장, 탐라승마장, 송당승마장, 명산승마장, 그린승마타운, 에덴승마장, 초원승마장, 월대, 절부암, 명도암관광휴양목장, 서귀포충패류화석, 제주온천리조트, 이시돌목장, 15번지농원, 삼성농원, 제주농원, 내성농원, 서귀포농원, 길농원, 서림농원, 비바리농원, 하르방농원, 도순바나나, 오렌지난원, 마라도농원, 사라봉, 신산공원, 관광단지입구소공원, 세화송당은천지구, 서광관광휴양목장, 제주그랜드호텔, 하얏트호텔, 신라호텔, 칼호텔, 제주남서울호텔, 오리엔탈호텔, 서귀포칼호텔, 서귀포항, 제주경마장, 하도리관광체험어장, 모충사, 만세동산, 동북리관광체험어장, 지암요, 돌하르방직판매장, 산지별꽃가공공장, 신비의 도로, 1100고지휴게소, 대한항공미래항공관, 하멜표류기념비, 용수리철새도래지, 선임교, 중문오렌지파크, 천제루, 제주비행훈련원, 제주도축산진흥원, 하도리철새도래지, 제주관광수족관, 식산봉
군집 3		향사당, 칠머리당굿전송지, 화북전성, 원당사지5층석탑, 고인돌, 별화사지, 연북정, 대정성지, 산천단, 제주읍성, 해신사, 방사탑, 연대, 별방성지, 명월성지, 원동마을터, 오현단, 덕수리블미공예, 삼사석, 조설대, 혼인지, 명월대
군집 4		레포츠공원, 파라다이스골프클럽, 대유랜드, 삼무공원, 김녕해수욕장, 벚꽃거리, 표선해수욕장, 수산유원지, 삼양해수욕장, 화순해수욕장, 중문해수욕장, 남원 큰영, 함덕해수욕장, 이호해수욕장, 광지해수욕장, 신양해수욕장, 협재해수욕장
군집 5		해변공연장, 제주문예회관, 제주관광민속관, 명진리조트, 경주마육성목장, 서귀포문예회관, 약천사, 북제주군제주청소년수련원, 영화박물관, 향파두리항몽유적지
군집 6		제주시종합경기장, 대유랜드, 제주절물자연휴양림, 서귀포자연휴양림, 교래농어촌휴양단지, 남읍관광휴양목장
군집 7		천지연폭포, 산방산, 삼매봉, 영주산, 강정천, 돈내코국민관광지, 무수천, 수악계곡, 천제연폭포, 김녕사굴, 협재굴, 월정리종유굴, 어음리빌레못굴, 만장굴
군집 8		관탈섬, 문주란자생지(난도), 형제도, 삼성혈, 지귀도, 범섬, 성산일출봉, 남읍금산공원, 분재예술원, 차귀도, 마라도, 백록담, 삼도, 산굼부리, 우도, 비자림, 비양도, 안덕계곡, 문도
군집 9	군집 1	방선문, 추사적거리, 성읍민속마을, 제주민속박물관, 중문민속박물관,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교육박물관, 제주민속촌
	군집 2	제주조각공원, 기당미술관, 신천지미술관, 탐라목석원
	군집 3	한라수목원, 한림공원, 한라산등산로, 제주관광식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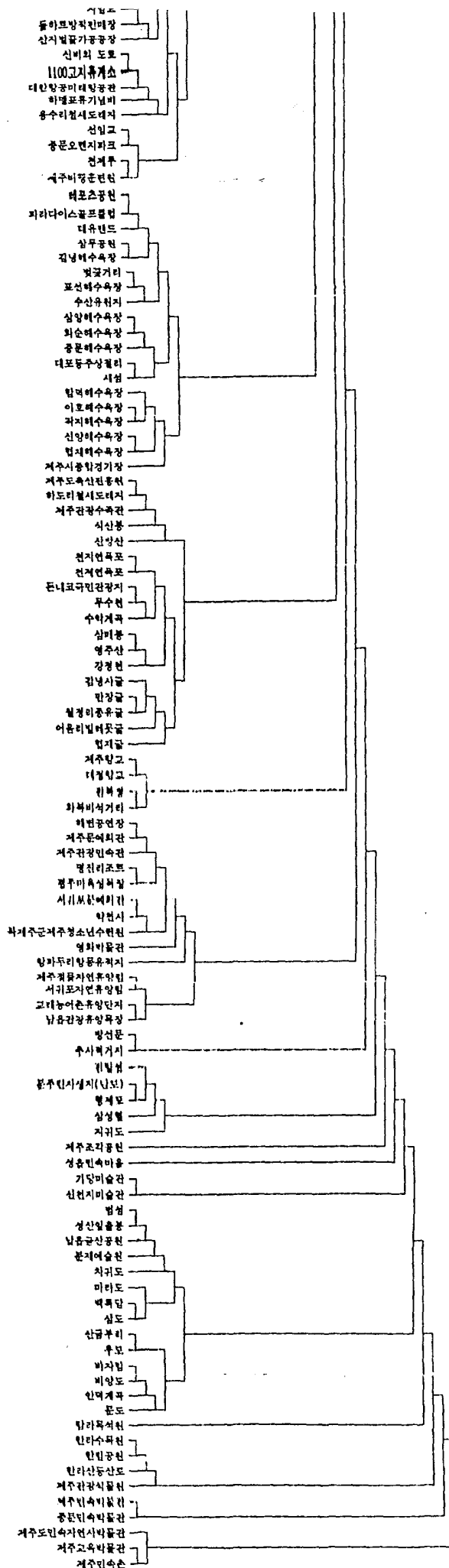
Dendrogram Using Ward Method

Rescaled Distance Cluster Combine









ABSTRACT

The Spacial Distribution of Tourist Attractions in Jeju Island

JEONG Chan-sook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pacial distribution of tourist attractions in Jeju Island, the representative sights of Korea. We also analyze the changes in preferences of tourists regarding various types of resorts and then provide an appropriate direction of the development of tourist attractions.

To find out the spacial distribution of tourist attractions we first classify the components of tourist attractions and perform the cluster analysis. There are five major components comprising tourist attractions, cultural inheritance, leisure facilities, geographical features, beautiful plants, and cultural attractions. According to the test results, the tourist sights in Jeju Island can be classified into five groups depending upon

their major component. Cultural inheritance and cultural attractions are mainly distributed along the seaside, Jeju city in particular, with the altitude below 100m. Leisure facilities are mainly located in Jeju City and Seoguido City, but they are also available in various places of the Island with the altitude of 200-600m unlike the other components of tourist attractions. Tourist attractions with outstanding geographical features are mainly distributed along the seaside while those with exotic plants are distributed among small islands located south of Jeju City. Those tourist attractions are establishing cultural and leisure facilities.

To analyze the changes in preferences of tourists in Jeju Island we compare the number of tourists in major tour sites in 1989 with that in 1994. We also compare these results with the forecast of tourism activities performed according to Tourism Development Plan in Jeju Island. The results show that the number of tourists that visit the area with cultural attractions has decreased. The number of tourists in the area with geographical features still accounts for 66.8% of total tourists in 1994, but its rate of increase is declining. However, the number of tourists in cultural attractions and leisure facilities has recently increased while its portion is not significant yet. This implies that the preferences of the tourists has changed such that more people now visit cultural attractions and leisure facilities.